Weekly 공감

2011.06.01 NO.111
gonggam.korea.kr



T-50은 세계로 P6~9
KTX는 하나로 P19~33

중점기획 휴식 즐기고 자연도 살리는 녹색캠핑 P34~43
탤런트 박상원 "청년들의 해외봉사는 국력의 상징" P44~45

정예화된 선진강군



나라를 위한 고귀한 헌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6·25전사자 유해발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입니다

»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시료 채취 참여

"단 한번의 참여로 돌아오지 못한 혈육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전화신청(우편채취 가능)

»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 신고

- 직접 매장, 목격, 발견 또는 들으신 내용
  ★제보결과 유해발굴시 소정의 포상금 지급

전화 : 1577-5625(오!6·25)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메트로폴리탄 시대가 왔다



이주연
한국교통연구원
KTX경제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 1단계(서울~동대구) 구간 개통으로 우리나라 고속철도 시대가 개막됐다. 그리고 지난 2010년 11월 동대구~경주~울산~부산을 연결하는 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모하게 됐다.

초고속·대량수송이 가능한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의 교통체계는 크게 변했다. 전국의 교통체계는 KTX를 중심으로 재편됐고, KTX는 중·장거리 지역 간 통행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고속철도 개통 이후 6년간 KTX 이용승객은 총 2억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수입액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대구, 서울~부산 등 3백킬로미터 이상 장거리 통행의 KTX 수송분담률은 약 60퍼센트로 승용차·버스 등 타 수단에 비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KTX역은 지역 간 통행의 거점으로 급부상했다. 서울~대구 통행량은 2003년 7백66만 명에서 2008년에는 1천1백90만 명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서울~경주, 서울~포항 등 서울과 대구 주변지역 간 직접 통행량이 상당부분 동대구역을 경유하게 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이처럼 KTX 네트워크는 전국의 거점들을 빠르게 연결하여 국민 생활공간을 크게 확장시키고, 전국을 통합하는 핵심 원동력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는 2010년 9월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전국 주요 거점들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여 전 국토를 90분대의 생활권으로 통합시키는 계획을 수립했다. 전국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함으로써, 세계의 거대지역 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다. 이미 일본, 미국, 유럽, 중국은 거대지역권 내 산업 간 유기적 연계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고속교통망 연결에 집중 투자를 계획 중이다. 거대지역권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KTX 네트워크는 전국의 도시들을 빠르게 연결하여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와 물자의 흐름을 전국으로 빠르게 전달하여 지역 간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서 KTX 역세권 발전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KTX망을 활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도시처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때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추어 KTX 역세권을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KTX 역세권이 지역경제와 광역교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주변 지역이 하나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게 되면, KTX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른바 '메트로폴리탄시티' 구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고속철도는 교통혁명의 견인차로서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와 물자의 흐름을 빠르게 전달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지역발전의 새로운 거점 및 기폭제로서 KTX 역세권이 발전한다면,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지역과 국가 경제발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Contents

NO. 111 2011.06.01 통권 212호



일러스트 · 유현호

19

기획특집

전국 돌아도 반나절 KTX 경제권이 뜬다

'산업 대동맥' 경부고속도로가 전국을 한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했다면 KTX 고속철도는 전국을 반나절권으로 연결했다. 2020년 고속철도의 전국 네트워크가 완성되면 우리나라 주요 도시는 90분 내에 연결돼, 지역 대 지역이 맞서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 대립하는 갈등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면 우리 국민의 마음도 하나가 될 것이다.

01 **Reader & Leader** | 메트로폴리탄 시대가 왔다

20 **총론** | 아침은 서울, 영화 한 편 보고 부산서 점심

22 **2020 비전** | 1시간30분대에 KTX로 전국 연결

24 **동대구역** | 복합환승센터로 변신… 대구경제 기관차로

26 **천안아산역** | '수도권보다 가까운' 아산신도시

28 **익산역** | 호남 최대 '교통 허브'로 힘찬 도약

30 **해외사례** | 교통 확 뚫리자 '도시재생'에 성공

32 **전문가 쓴소리** | KTX-산천의 우수성 못 살린 '안전 불감'



표지 이야기 공군 특수곡예비행팀 '블랙이글스(Black Eagles) 소속 T-50기들이 남해안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T-50 고등훈련기 16대의 인도네시아 수출로 한국은 세계 6번째의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이 됐다. 사진 · 조선DB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6.0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04 **공감 라운지** | 지구 살리는 앱 개발에 참여하세요

06 **포커스** | 고등훈련기 T-50 수출 시장 날다

09 **인터뷰** | 김홍경 KAI사장
"한·인도네시아 정상의 정성이 통했다"

10 **문화 포커스** | 일성록 – 5·18 기록물, '세계유산' 됐다

12 **이슈** |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 전담팀 떴다

14 **6월은 호국보훈의 달** | 영령들의 충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16 **스포츠** | 독도야! 잘 있느냐… 우리가 간다

| 중점기획 | 녹색캠핑

34 **이렇게 실천을** | 즐기자 1박2일! 지키자 자연보호

36 **숨어있는 명당 10선** | 쉿! 여기에 오면 자연이 뛰놀고 있어요

40 **캠핑 마니아들** | 온가족의 끈끈한 유대는 '캠핑의 선물'

42 **편리한 애플리케이션** | 이번엔 어디서 야외취침할까?

43 **체험프로그램** | 오토캠핑 맛보기… 춘천 중도로 오세요

44 **이 사람** | 월드프렌즈코리아 한마당 외교사절로 참석한 박상원
"청년들의 세계 봉사는 국력의 상징이죠"

46 **세계의 친구** | 코리아 맞춤형 '따뜻한 기술'로 개도국 과학봉사

48 **반갑습니다** | 흥행몰이 한창인 영화 〈써니〉 강형철 감독
"우리 엄마들의 '소녀시대'를 담았어요"

50 **화제의 공무원** | "한국판 로렐라이 언덕 만들고 싶어요"

52 **지방행정의 달인** | 문화와 생태… 지역 보물을 '세상 밖으로'

54 **G20세대가 G20세대에게** | "도전과 성취… 개도국은 꿈꾸는 자의 땅"

56 **문화부 대학생기자가 만난 사람** | 기타리스트 정성하 군

58 **공감코리아 정책기자의 세상읽기** | 스물다섯 총각, 김치 만나 일냈다

60 **서평** | 안길수 〈아직 하지 못한 말〉

61 **공감카툰** | 몸을 낮추십시오

62 **문화공감** | "엄마, 내 몸이 없어졌어요" "ㅋㅋ 원리가 뭐냐 하면"

64 **영화 속 영웅 이야기** | 약해진 영웅상에 '미래의 상징' 긴급 투입

Lounge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2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은퇴는 새로운 출발! 지금부터 준비를

"기획특집 '베이비붐 세대'는 52세인 제게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에서 25년간 근무해 온 저는 앞으로 몇 년 후면 퇴직 걱정을 해야 될 나이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획특집 기사를 보며 은퇴가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상수 (전남 목포시 신흥동)

우리 청소년의 밝은 미래 보여

"중점기획 '날아라! 청소년' 기사에서 요즘 아이들이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소개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청소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을 향한 따뜻한 관심은 곧 국가 미래의 밑거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아이들을 보며 젊은 세대의 밝은 미래가 펼쳐진 것 같아 인상 깊었습니다."

박상암 (전남 목포시 복만동)

세계평화 위해 일하는 대한민국 파이팅!

"이슈 현장 '서울 G20국회의장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기사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간 협력과 함께 우리나라도 G20 주최국이자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나라로서 그 막중한 책무와 숭고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의 조화로운 지구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주축국가가 되고자 함을 대내외적으로 잘 표방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욱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고산씨 희망이야기 절실하게 와 닿아

"'G20세대가 G20세대에게'를 통해 오랜만에 고산씨를 만나게 돼 반가웠습니다. 더불어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을 엿볼 수 있었던 우주인 선발과정부터 나로호 발사, 그리고 아쉬운 실패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갔습니다. 국내 첫 우주인으로 선발되고도 우주에 가지 못한 아쉬움이 크겠지만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꿈을 꾸고 있다는 그를 보니 젊은 과학자로서의 열정과 앞으로 나로호 발사 성공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깁니다. '강한 나라는 강한 과학기술력에서 나온다'는 말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 고민만 하지 말고 넓은 세계를 경험해 보라'는 그의 말이 절실하게 와 닿았습니다."

강수현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탱크' 최경주, 실력과 인품 모두 굿!

"최경주 선수가 미PGA 플레이스 챔피언십에서 오랜만에 감격스러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 선수는 늦은 나이에 골프를 시작했지만 열정을 다한 결과 우승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골프 실력만 프로가 아니라 기부에도 앞장서는 그는 많은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력과 인품 등 모든 면에서 프로인 최 선수에게 응원과 존경을 보냅니다."

장보경 (대구시 북구 고성동3가)

이 기사, 아쉬워요

"현실적으로 월급 30~50퍼센트 떼어 놓기 어려워"



'자식 뒷바라지 지나치면 노후에 쪽박' 기사를 보면 아직까지 노후 준비가 안된 사람은 월급의 30~50퍼센트를 노후자금으로 준비하라고 하는데 대략 언제부터 그렇게 해야 하나요? 빠를수록 좋겠지만 과연 월급의 30~50퍼센트를 노후준비로 떼어 놓을 만큼 많은 월급을 받는 베이비붐 세대가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전흥진 (프리랜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건전 청소년 사이트도 알려줬으면"



두 명의 청소년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중점기획 '달라지는 청소년 문화' 기사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나 체험문화를 많이 소개해 주었으면 합니다. 청소년에게 유익한 청소년 건전 인터넷 사이트도 지면을 통해 제시해 주었더라면 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박동현 (회사원,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알립니다

지구 살리는 앱 개발에 참여하세요



산림청은 '사막화방지 실천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올해는 유엔(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이자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당사국 총회'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의미 있는 해다. 사막화 방지를 위한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앱 개발에 많은 참여 바란다.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 가능하다.

공모 내용 | 사막화방지 실천을 주제로 스마트폰에서 활용이 가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아이디어
응모 분야 | 게임, 실시간 정보제공, 다이어리 등 자유
응모 방법 | UNCCD 홈페이지(www.unccd.go.kr)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아이디어 제안서 1부(자유 형식)와 함께 이메일 접수
접수 기간 | 6월 17일까지
지원 혜택 | 시상 외 소정의 상금 수여
앱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 unccdcrew@hanmail.net

웹툰으로 어린이 안전 지켜주세요

행정안전부는 '2011 어린이 안전 웹툰 공모전'을 실시한다. 주제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아이디어 및 정책홍보를 위한 웹툰'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 기간 | 6월 10일까지
공모 규격 | 공모전 주제에 맞는 10컷 이상의 웹툰 완결본 원고 1편(초등부는 4컷 이상), JPG이미지 파일로 가로 최대 690픽셀
접수 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safetywebtoon.co.kr)에서 응모지원서 다운받은 후 웹툰작품과 함께 하나의 압축파일로 만들어 이메일 접수
지원혜택 | 시상 외 상금 수여, 인터넷 노컷뉴스를 통한 온라인 연재 데뷔
어린이 안전 웹툰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 safetywebtoon@cbs.co.kr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아주세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기투표가 한창(11월 10일까지)인 가운데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화 투표 | 001-1588-7715, 영어 안내 음성 후 '삐' 소리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입력한다. 전화료 약 1백40원
문자 투표 | '제주' 'jeju' 'JEJU' 중 택1 하여 문자 작성 후 001-1588-7715로 전송.

자세한 내용은 '세계 7대 자연 경관 제주 공식블로그(blog.naver.com/7wondersjeju)' 참고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www.jejun7w.com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6월 7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3. 운동경기나 기술 등에서, 기량이 뛰어나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이죠. 축구 국가 대표 ○○.
4. 신문사나 잡지사, 방송사 등에 뉴스를 제공하는 기관. 영국의 로이터, 프랑스의 AFP, 미국의 AP, UPI 등.
6. 어떤 분야에서 발전될 가망이 많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시세가 오를 가망이 있는 주식.
7. 군대나 탐험대 활동의 근거지. 미군○○.
8. 배를 폭격하거나 폭발시켜 가라앉히는 것.

세 로

1. 도로 거두어들임. 되찾아옴.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 ○○가 시급하다."
2. 길, 철로, 전화 등을 완성하거나 이어 통하게 함. "경부고속철 2단계 ○○으로 역세권 특성화 개발이 기대된다."
3. 운동경기나 어떤 일에서 맨 앞을 달리는 사람. 'KTX 역세권 개발의 ○○○○ 천안 · 아산역.'
5. 개인이 가진 땅. ↔국유지.
7. 콜록 콜록.

〈Weekly 공감〉 109호(5월 18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2창업 4구두쇠 6이전 8프랑스 10타자기
세로 1달구벌 3업둥이 5쇠고랑 7전초기지 9스타

〈Weekly 공감〉 109호 '공감 퍼즐' 당첨자

길상영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김인순 · 경북 김천시 신음동
김준상 · 광주시 서구 금호동
신문수 ·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이은경 · 전북 부안군 백산면



T-50은 한국 공군에 납품된 이후 3만1천 시간의 무사고 비행을 기록하고 있다.

고등훈련기 T-50 수출 시장 날다

인도네시아와 16대 수출계약… 세계 6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 진입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이 처음으로 해외 진출 길을 뚫었다.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정부가 합심 노력한 끝에 일궈낸 쾌거다. T-50 16대 수출은 중형자동차 1만6천 대 수출에 맞먹는다. 또 미화 약 6억5천만 달러 상당의 생산 유발 효과와 7천7백여 명에 달하는 신규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검독수리가 드디어 한반도라는 둥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5월 25일 인도네시아와 총 16대 4억 달러 규모(약 4천4백억원)의 T-50 수출 계약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스웨덴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이 됐다. T-50은 2013년까지 인도네시아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일명 골든이글(검독수리)이라고 불리는 T-50은 KAI가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함께 지난 1997년부터 10년에 걸쳐 2조1천억여 원을 들여 개발한 고등훈련기.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로 다목적 레이더(EL-2032)와 위성·관성항법장치(GPS/INS), 통합형 피아식별장치(IFF), 일체형 조종간(HOTAS) 등 최첨단 전자장비를 갖춘 '명품' 항공기다.

뿐만 아니라 공대공미사일(AIM-9)과 공대지미사일(AGM-65), 합동직격탄(JDAM) 유도폭탄 등 4천5백36킬로그램의 무기를 탑재하면 경공격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당초 T-50은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에 최대 1천 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우리 정부도 T-50 수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 왕세자에게 T-50 구매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08년 폴란드 방문 시에도 이 대통령은 T-50을 열심히 세일즈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작년 G20정상회의 때 우리 정부가 싱가포르를 초청국에 포함시켰던 것은 싱가포르에 T-50을 수출하기 위한 포석이었지만,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부품업체와 협력 가격인하 등 전방위 노력

T-50의 수출이 좌절되면서 대당 2천5백만 달러에 달하는 가격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 공군이 요구하는 고급 사양을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니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졌고, 때문에 이탈리아의 M-346 등 경쟁기종에 밀리게 됐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T-50 수출은 운전면허시험장에 그랜저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가격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김홍경 KAI 사장은 "비행기 성능만 보면 우리가 경쟁기종보다 앞섰지만, UAE 때에는 UAE 정부가 요


조선DB

지난해 12월 9일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지난 5월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 박노선 수출본부장(왼쪽)과 인도네시아 수실로 방산시설청장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구한 산업협력에서, 싱가포르 때에는 금융조달 측면에서 밀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T-50 수출을 위해 계속 노력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8월 T-50, 러시아 야크-130, 체코 L-159B 등 3개 기종을 훈련기 사업 후보로 선정했다. 작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도발 직후에 웬 휴양지 방문이냐"고 비판했지만, 이 대통령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인도네시아 방문을 밀어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탱크를 비롯한 육상 무기와 잠수함, 훈련기 등에 있어서 한국과 공동 생산 등을 하고 국방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중형자동차 1만 6천대 수출과 같은 효과

인도네시아군은 과거부터 러시아와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었던 탓에 러시아 무기체계도 다수 사용하고 있던 터였다. 때문에 야크-130이 T-50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 무렵 야크-130 추락사고가 일어났다. 자연히 인도네시아 공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러시아 훈련기를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서울을 방문했다. 이때 특사단 숙소에 외부인이 침입하는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T-50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12일 KAI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돼 5월 25일 계약 타결에 이르렀다.

T-50의 수출 성사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김홍경 사장은 "T-50 1대 수출은 중형자동차 1천 대를 수출하는 것에 상응한다"고 말했다. T-50 16대 수출은 중형자동차 1만6천 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셈이다. 또 미화 약 6억5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생산 유발 효과와 7천7백여 명에 달하는 신규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항공기는 자동차보다 10배가 넘는 25만~30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T-50에 들어가는 중소 부품생산업체들에 돌아가는 혜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홍경 사장은 "중소 협력업체 70개사에서 1천7백여 명의 인력이 동원되고, 수출액 4억 달러의 약 38퍼센트인 1억5천만 달러 정도가 협력업체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의 표본인 셈이다.

부가가치율도 높다. 항공산업은 완제품이 고가인 반면 기초원자재 투입 비중이 낮아 부가가치율이 44퍼센트에 달한다. 고(高) 부가가치 제품의 '대표주자'인 자동차(25퍼센트)의 2배 가까운 수치다. KAI는 T-50의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가 1억7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30년까지 1천대 이상을 수출한다는 목표 아래 록히드마틴사와 공동마케팅팀을 설립, 폴란드·미국·이스라엘 등에 T-50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G

글·배진영 기자

김홍경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한·인도네시아 정상의 정성이 통했다"

"항공기는 소재·전자 등 첨단기술의 집합체입니다.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소재·전자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50 고등훈련기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성사시킨 김홍경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반도체·휴대폰·자동차 산업보다 월등한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초음속 항공기 수출은 국가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민적 자긍심 고취에도 큰 도움이 되는, 원전 수출 못지않은 국가적 쾌거"라고 역설했다.


조선DB

번번이 T-50 해외 수출이 좌절되면서 마음고생이 컸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싱가포르 수출에는 실패했지만, 아랍에미리트(UAE)는 이탈리아 M-346을 도입하기로 했다가 취소했어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수출에 성공했으니, 지금까지의 전적은 1승1무1패인 셈입니다."

이번 수출 성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과거 KT-1 기본훈련기를 인도네시아·터키 등에 수출한 적은 있지만, 우리가 초음속 항공기를 외국에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동안 T-50이,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서 수출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T-50의 가격이 핸디캡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명 주기 내 비용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경쟁 기종 중에는 초음속기가 없습니다. 다른 기종을 도입할 경우 초음속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초음속 훈련기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T-50을 도입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울러 우리 공군이 2007년 T-50기를 도입한 이후 3만1천 시간 동안 무사고를 기록했으며, 비행시간은 20퍼센트, 훈련비용은 35퍼센트 적게 들이고도 훈련효과는 40퍼센트 향상되는 효과를 보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50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인도네시아는 과거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들과 가까웠기 때문에 서방 무기체계와 함께 러시아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 공군에서는 러시아제 훈련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에게 '앞으로 인도네시아 공군도 미국제 F-16이나 F-35를 운용하게 될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 초음속 훈련기인 T-50이 적격'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T-50을 채택한 것은 앞으로 폴란드 등 과거 러시아 무기체계를 운용해 오던 나라에 T-50을 수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애로점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T-50이라는 비행기는 KAI라는 일개 회사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비행기를 사 가는 나라도 우리 회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고 비행기를 사 가는 것입니다. 이번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에서도 양국 정부가 오랫동안 구축한 우호·신뢰 관계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연평도 포격이라는 안보 위기 속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유도요노 대통령이 개최한 '발리 민주주의 포럼'(아태지역 고위급 지역협력 모임)에 참석한 것이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G

글·배진영 기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던 1980년 당시 시민 성명서, 일기, 사진, 문서, 기자 취재일지 등 5·18관련 기록물들이 지난 5월 10일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자료실에 전시되고 있다.

일성록-5·18 기록물, '세계유산' 됐다

모두 9건 세계기록유산 등재… 아시아에선 제일 많고 세계서도 5번째

조선 후기에 국왕의 동정 및 제반 국정운영을 매일 일기체로 정리한 일성록(日省錄 · 국보 153호)과 5 · 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이 됐다.

유네스코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제10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5월 24일 오후(한국시각), 한국이 신청한 〈일성록〉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이상 1997년),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승정원일기(이상 2001년),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 의궤(이상 2007년), 동의보감(2009년)에 이어 모두 9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며, 세계에서는 5번째로 많다.

일성록

영조 36년부터 1백51년간 국정운영 기록한 일기

〈일성록〉은 조선 영조 36년(1760)부터 1910년까지 151년 동안의 국정운영 내용을 기록한 일기다.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존현각일기(尊賢閣日記)〉를 기반으로 시작됐으며,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는 국가의 공식 기록으로 편입됐다.

정조는 규장각 관원들에게 명령해 매일 일기를 작성한 다음 5일마다 일기를 정서해 왕에게 올려 결재받도록 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일성록〉. 조선 후기 국왕의 동정·국정운영을 일기체로 정리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가 왕을 3인칭으로 표현해 시간 순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 〈일성록〉은 왕을 1인칭 용어인 '여(予:나)'로 기록하고 있으며 시간 순이 아닌 주제 순으로 편찬했다.

한 질만 편찬된 유일본(필사본)으로, 2천3백29책 전체가 온전하며 모두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다. 책 제목인 '일성록'은 논어(論語)에서 증자가 말한 '오일삼성오신(吾日三省吾身: 나는 날마다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 반성한다)'에서 인용한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문서·사진 등 수만 점… 한국 현대사 기록 첫 사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은 1980년 5·18 당시의 문서 자료와 사진·영상·구술 자료 등 수만 점에 달한다. '5·18기록유산등재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진 민주당 의원)가 정부 기관 자료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 사진·필름, 피해자 병원치료 기록, 국가보상 자료, 미국 비밀해제문서 등 5·18 전개과정과 흐름을 보여주는 방대한 자료를 묶어 지난해 3월 말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일반정보사업국의 사전심사를 거쳐 올해 2월 열린 예비심사에서 '등재 권고'를 받았다.

국내 일부 단체가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반대 청원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으나, 김황식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한 "이미 역사적 심판이 내려진 것인 만큼 그런 (단체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IAC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현대사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첫 사례다. 현재 남아공 만델라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록물과 필리핀의 민중혁명 음성 테이프,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인권운동 기록물 등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G

글·허윤희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세계사적 가치 인정… 83개국 1백93건 등재

어떤 가치 인정받았나

유네스코는 〈일성록〉에 대해 18~20세기 동·서양의 정치·문화적 교류의 구체적 실상과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왕명에 의해 국가기관이 작성해 국가의 주도하에 보관 관리가 잘 이루어진 점, 국왕이 자신의 정치운영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향후 국정운영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작성한 일기라는, 독창성 기록물이라는 점도 높게 평가됐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에 대해서는 한국 민주화에 큰 전기(轉機)가 됐을 뿐 아니라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란

세계기록유산은 1992년 유네스코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2년마다 등재 유산이 결정된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말까지 등록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매년 9월 초 유네스코 일반정보사업국(PGI)에서 신청서를 사전 심사한 후, 2년마다 IAC에서 최종 심사해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IAC의 권고를 받아들여 등재 확정을 공식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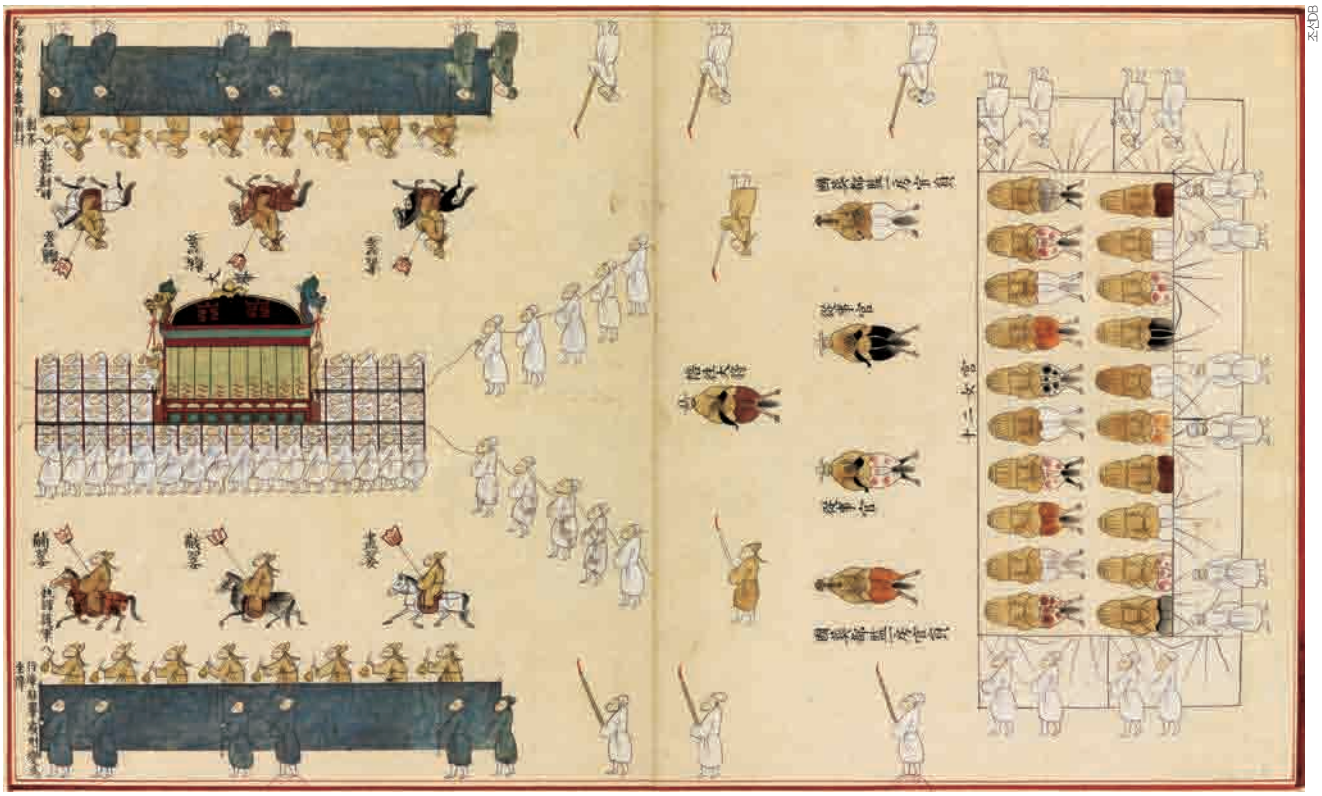
세계기록유산이 되면 유네스코에서 보존 관리를 위한 보조금과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현재 전 세계에서 83개국 1백93건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안네 프랑크의 일기'(네덜란드) '코페르니쿠스 자서전'(폴란드) '수에즈 운하 비망록'(이집트) '타밀 의료기록 모음집'(인도) '입센의 인형의 집 필사본'(노르웨이) '슈베르트 악보 모음집'(오스트리아) '안데르센의 원고 필사본과 편지'(덴마크) '영화 오즈의 마법사'(미국) 등이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오른 한국의 기록유산

훈민정음 해례본(1997)·조선왕조실록(1997)·승정원일기(2011)·직지심경(2011)·조선왕조의궤(2007)·해인사 고려대장경판〈팔만대장경〉과 경판들(2007)·동의보감(2009)·일성록(2011)·5·18민주화운동 기록물(2011)

괄호 안은 등재년도



조선DB

반환되는 외규장각 도서 중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 하권의 반차도(班次圖).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 전담팀 떴다

국외문화재팀 신설… 외교부·문화재청 등 유관부서 협조체제 구축

지난 5월 27일 4차분 73책의 반환을 끝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해 온 외규장각 의궤 2백97책이 모두 반환됐다. 6월부터는 일본이 조선총독부를 통해 약탈해 간 조선왕실 의궤 1천2백5책의 반환 작업이 시작된다. 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의 해외 문화재 환수 노력을 살펴본다.

지난 5월 27일 오전 10시, 인천공항.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해 온 외규장각 도서(의궤) 4차분 73책이 반환됐다. 이로써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약탈당한 후 이역 땅에서 망향의 한을 달래던 외규장각 도서 2백97책은 1백4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외규장각 도서의 귀환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박병선 박사가 그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리고 1991년 반환운동을 시작한 이래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은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KTX 수주전이 한창이던 1993년 방한한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약속했다. 하지만 프랑스 국내의 반발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 도서 2백97책 전체 환국

2000년 방한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001년까지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역

시 "외규장각 도서에 상응하는 고문서를 프랑스에 제공한다"는 맞교환 조항에 대한 비판이 일어 무산되고 말았다.

외규장각 도서 반환이라는 오랜 숙제가 해결된 것은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였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프랑스가 5년 단위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14일 1차분 75책이 돌아왔다. 다음 날 이명박 대통령은 박병선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사님 같은 분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쁨이 가능한 것"이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외규장각 도서는 어렵게 고국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이역만리에서 귀향의 날을 기다리는 해외유출 문화재는 수없이 많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유출 문화재는 20개국 14만5백60점에 달한다(2011년 4월 현재).

해외유출 문화재의 환수는 외규장각 도서의 경우에서 보듯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쉽게 결실을 보기 힘든 난제 중의 난제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수 힘들 땐 문화재 우수성 널리 알려"

2010년 2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국가는 국외 소재 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제67조)"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국외 소재 문화재의 조사·연구를 실시하고(제68조),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제69조).

문화재청은 2009년 4월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문화재환수협의회'를 설립했다. 지난 5월 25일에는 문화재 환수 문제를 전담하는 국외문화재팀이 신설됐다.

초대 팀장인 이길배 서기관은 "국민들의 관심에 어깨가 무겁다"면서 "국외 문화재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를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외유출 문화재는 '외교' 문제이기도 하다. 일례로 과거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도 문화재 반환은 중요한 현안이었다. 우리 정부는 1958년 제4차 국교정상화 회담 이래 이 문제로 일본 정부와 줄다리기를 한 끝에, 결국 1천4백31점(고고미술품 5백44점, 전적류 8백52책, 기타 35점)을 돌려받았다. 외교통상부는 재외 공관을 통한 해외유출 문화재의 소재 파악, 문화재 보유국과의 외교적 교섭, 유네스코(UNESCO) 등 다자기구에서의 관련 논의 참여 등을 통해



조선DB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해 온 외규장각 도서 중 마지막 4차 분이 지난 5월 27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해외유출 문화재의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 위원회(ICPRCP)'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ICPRCP 활동을 통해 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 규범과 제도의 제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문화재 환수 관련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에는 민동석 외교통상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해외문화재협의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청와대·국무총리실·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국립민속박물관·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국제교류재단 등 유관 기관 국·과장급 인사들이 참석, 유관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조선왕실의궤 등도 7~8월께 日서 1차 인수

외교통상부와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문화재 반환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국립민속박물관,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 등은 해외박물관 한국실 설치 사업 등을 통해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활용 활동도 지원한다.

일본은 작년 8월 10일 간 나오토 총리가 한일합방 100주년 담화를 통해 "조선왕실 의궤 등 한반도 유래 도서 인도"를 약속했다. 작년 11월 14일 한일 정상은 조선총독부를 거쳐 일본에 반출된 도서 1천2백5책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한일도서협정에 서명했고, 지난 4월 28일 일본 중의원은 협정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최광식 문화재청장은 "6월 초 실무진이 일본에 파견되어 인수작업에 들어간다"면서 "빠르면 7~8월에는 1차 도착분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배진영 기자

영령들의 충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헌화 무료대행·국내선 항공기 특별할인 행사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6월 중 각종 기념식과 추모식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달의 6·25 전쟁영웅' 선정, 국내 첫 보훈재활체육센터 준공식, 제1회 의병의 날 기념식 등도 잇달아 선보였다.

한 글자 한 글자, 붓을 든 어린이와 집배원들의 정성스런 손길에, 흐려진 무연고 묘지의 비문이 뚜렷해졌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며칠 앞둔 지난 5월 25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는 우정사업본부가 진행한 '오천만 마음 모아 대한민국 헌화캠페인'이 개최돼 어린이와 집배원 90여 명이 순국선열 앞에 헌화하고 무연고 묘비 비문을 새로 쓰는 행사를 가졌다.

우정사업본부 헌화캠페인은 현충원이나 호국원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접수를 받아 무궁화와 국화를 호국영령에게 대신 헌화해 주는 무료 행사.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우체국(epost.kr)을 통해 진행된 헌화캠페인은 올해로 5년째다.

이와 같은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먼저 6·25 전쟁 6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올 6월부터 '이달의 6·25 전쟁영웅'이 선정된다.

국가보훈처는 5월 19일 대한민국을 수호한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온 국민, 특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한 영웅들을 널리 알려 자유를 위한 희생의 고귀함을 일깨우기 위해 '이달의 6·25 전쟁영웅'을 선정해 발표했다.

6·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 및 전쟁기념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위원회'를 거쳐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올 6월의 영웅은 맨손으로 적의 탱크와 맞선 심일 육군소령이다.

'이달의 6·25 전쟁영웅' 심일 육군소령

심 소령은 1950년 6월 25일 춘천 및 홍천지구전투에서 6사단 7연대 대전차포대 2소대장으로, 북한군의 탱크형 자주포가 아군의 대전차포를 맞고도 계속 전진해 오자 5명의 특공대를 편성해 수류탄과 화염병으로 육탄 돌격, 적 자주포 3대를 격파했다. 심 소령의 전공은 순식간에 전군에 전파되어 모든 전선에서 육탄공격으로 적 전차를 파괴하는 계기가 됐다.



조선DB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과 헌화 신청을 한 어린이들이 호국보훈의 달을 앞둔 5월 2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무연고 묘역에 헌화하고 비문 되쓰기를 했다.

올 12월까지의 영웅들도 선정됐다. 공군 최초로 전투기편대를 지휘하여 남하하는 적 탱크 20여 대를 공격하다 산화한 이근석 준장(7월), 중대장으로 진동리전투에서 적 정찰대를 기습·섬멸하여 적의 예봉을 꺾은 공로로 전 대원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은 안창관 대령(8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여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맥아더 원수(9월), 백마고지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마고지 3용사(10월), 이등병으로 육박전을 전개해 다수의 적을 물리친 김옥상 일병(11월), 최악의 기상상황에서 해상작전 수행 중 자신의 함정과 함께 산화한 이태영 중령(12월) 등이다.

국제 수준의 보훈재활체육센터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보훈재활체육센터의 건립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하관교동 보훈교육연구원에서 보훈재활체육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보훈재활체육센터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약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2백7억원을 투입, ▲국제규격의 7레인 실내 론볼링장 ▲우리나라 최초의 50미터 실내 실거리 사격장 ▲웨이트트레이닝장 등을 갖춰 국가유공자 재활체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수준 보훈재활체육센터도 국내 첫 개관

한편 민간에서도 호국보훈의 달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6월 한달 동안 국내 항공업계가 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의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국내선 일반석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공자와 유족 본인은 평상시에도 30~50퍼센트 할인받지만, 이번 특별할인으로 추가 동반가족 1인까지 30퍼센트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아시아나는 국가유공 상이자와 5·18 민주유공 부상자의 경우 본인 공항세 50퍼센트를, 국가유공 상이자(1~3급) 동반자에 한해 공항세 50퍼센트를 각각 할인해 준다.

제주항공도 6월 한달간 국내·외 모든 노선에 대해 보훈가족 할인혜택을 확대·적용한다고 5월 23일 밝혔다. 국내노선에서 기존 국가유공 상이자 1~4급 및 독립유공자 40퍼센트 할인혜택을 국가유공 상이자 7급까지 확대하고, 할인율도 50퍼센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유공 상이자와 독립유공자 동반 보호자는 기존 1명에서 2명까지 40퍼센트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G 글·박경아 기자

국가보훈처 1577-0606 /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 제주항공 1599-1500

6월 1일은 첫 국가기념일 맞은 '의병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의병의 날'의 첫번째 기념식이 6월 1일 경남 의령군 의령읍 공설운동장에서 거행됐다.

호국보훈의 달 첫 테이프를 끊게 된 '의병의 날'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6월 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의병의 날로 지정했다.

'의병의 날'로 지정된 6월 1일은 곽재우 장군이 의령군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음력 1592년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이다.

곽재우 장군이 활동을 한 곳인 경남 의령군은 의병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의병의 날 행사 추진과 기념사업 발굴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행사 준비를 해왔다. 최근 곽재우 장군과 의병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병광장'을 의령읍 정암리 일대 7천8백40평방미터 부지에 완공했다. 제1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는 '의병제전'과 더불어 전야제·추모제향·기념식을 비롯해 민속행사와 문화·체육행사, 의병유적지 순례, 농산특산물 판매 등이 이뤄진다.

충남 의령군 055-570-2401~4

6월에 열리는 보훈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구파 백정기의사 77주년 추모제	5일 오전 11시	전북 정읍 백의사 기념관	구파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 063-535-7815
제56회 현충일 추념식	6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처 1577-0606
봉오동전투 전승 91주년 기념식	7일 오후 2시	서울 우당기념관	여천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02-734-8851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 기념식	10일 오후 4시	서울 서대문형무소 잔디광장	신흥무관학교 100주년기념사업회 02-969-0226
신돌석장군 순국 103주년 추모제향	13일 오전 11시	경북 충의사	영덕문화원 054-734-2456
제61주년 6·25 기념식	25일 오전 10시	서울 전쟁기념관	국가보훈처 1577-0606
백범 김구선생 62주기 추모식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백범기념관	백범김구선생 기념사업회 02-799-3400
	26일 오전 11시	인천대공원	광복회 인천시지부 032-428-1660
제9주년 제2연평해전 기념식	29일 오전 10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	국가보훈처 1577-0606
만해 한용운선생 67주기 추모법회	29일 오전 10시	서울 선학원	재단법인 선학원 02-734-9654~6



'2011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가 5월 30일~6월 6일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20개국 40개팀 3백여 명이 참가한다.

독도야! 잘 있느냐 우리가 간다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6월 6일까지

'2011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가 5월 30일~6월 6일 포항북부해수욕장에서 열린다. 포항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요트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포항~울릉도~독도~포항 구간(총 5백41킬로미터)을 회항하는 국제대회로 20개국 40개팀 3백여 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전문선수(ORC)와 동호회(OPEN) 2개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제요트대회는 '포뮬러 원(F1)'처럼 매년 세계 10개국을 돌며 세계 랭킹을 결정하는 대회다. 대회는 두 팀씩 1대1로 돌아가며 승부를 벌이는 '매치 레이스' 방식으로 치러진다.

대회에 출전하는 요트도 동일한데, 이번 한국 대회에서는 팀당 5명이 승선하는 세일링 요트로 통일됐다. 지난 4월 열린 이 대회의 우리나라 선수 선발전에서 5인승 요트는 길이 11미터, 무게 4.3톤으로 한국 '어드밴스드 마린테크(Advanced Marine Tech·암텍)'가 만든 것이다.

20개국 40개팀 3백여명 참가… 5백41㎞ 레이스

요트에서는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올 때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태킹, 바람이 뒤쪽에서 불어올 때 돛을 반대 측면으로 약 1백60도 돌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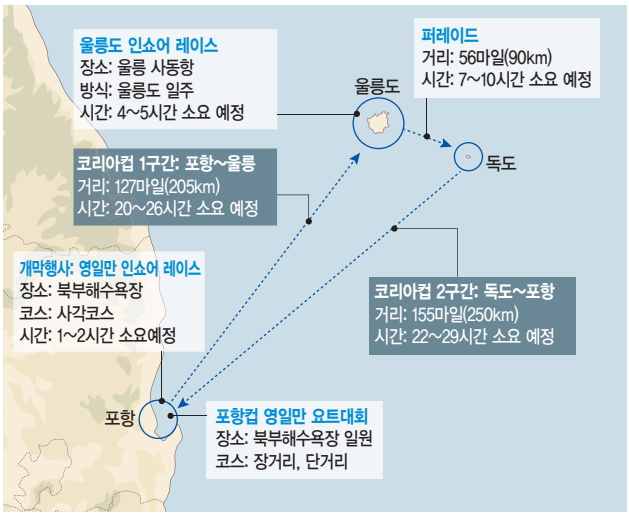
자이빙 등이 승부를 가른다. 그만큼 바람을 다스리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 예기치 않은 바람 때문에 경기 결과가 뒤바뀌는 일도 잦아 이변도 많이 나온다. 물론 기상조건도 중요하지만 '장비 과학화'는 우승을 위한 필수 항목이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대회는 많은 선수가 동시에 출발해 결승선을 통과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는 '플리트(fleet) 방식'으로 펼쳐진다.

한편 가수 김장훈과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객원교수는 지난 3월 26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와 관련한 전면광고를 실었다. 미주판을 포함해 아시아판, 유럽판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광고를 집행, 전 세계인들에게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를 널리 알리면서 동시에 독도를 자연스럽게 홍보하자는 취지였다. G

글·서일호 기자

대회코스





UCC 부문

2011 대한민국 스마트 미디어 앱 공모전

■ UCC 제작 부문

공모주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등 스마트 미디어의 유용성을 홍보하는 내용의 동영상 UCC

참가자격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인 포함) 로, 개인 또는 팀(9인 이내) 단위로 참가 가능

접수기간 2011. 5. 23(월) – 6. 24(금) / 1차 심사 시 7편 선정 → 네티즌 평가 2011. 7. 11(월) – 7. 22(금)

■ 앱 기획 부문

접수기간 2011. 6. 27(월) – 9. 9(금), 11주간

■ 앱 개발 부문

접수기간 2011. 6. 27(월) – 9. 9(금), 11주간
※개발계획서는 마감 2주전(2011. 8. 26)까지 접수 완료하되 9. 9까지 수정가능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www.smartapp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시상내역

UCC 제작 부문	대 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	200만원
	최우수상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2명	각 100만원
	우 수 상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4명	각 50만원
앱 기획 부문	대 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	200만원
	최우수상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3명	각 100만원
	우 수 상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4명	각 50만원
앱 개발 부문	대 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3명	500만원
	최우수상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원장상	3명	각 300만원
	우 수 상 | KT 사장상	1명	200만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장상	1명	200만원
	NHN 사장	1명	200만원
	전자신문 사장상	1명	200만원

문의 공모전 사무국 02-6911-6550, e-mail : smartapps@smartapps.or.kr

www.smartapps.or.kr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KDB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후원 kt Microsoft 전자신문

기획특집

KTX 타고온 반나절 생활권

'산업 대동맥' 경부고속도로가 전국을 한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했다면
KTX 고속철도는 전국을 반나절권으로 연결했다.
2020년 고속철도의 전국 네트워크가 완성되면 우리나라 주요 도시는 90분 내에 연결돼,
지역 대 지역이 맞서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 대립하는 갈등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면 우리 국민의 마음도 하나가 될 것이다.



일러스트 · 유현호

20 KTX 경제권이 뜬다
22 2020비전
24 동대구역
26 천안아산역
28 익산역
30 해외사례
32 전문가 쓴소리

조선DB



조선DB



KTX 고속열차는 우리 사회에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며 교통체계 변화는 물론 사회·경제적 변화까지 몰고 있다. 왼쪽부터 KTX 서울역, 대전역, 부산역.

아침은 서울, 영화 한편 보고 부산서 점심

수도권 집중 '빨대효과'도 성숙기 거치면 혜택 나누는 '샤워효과'

KTX 고속열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속도혁명은 우리의 삶과 경제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1905년 경부선 개통 당시 서울~부산에 17시간이 걸렸으나 1960년대 무궁화호가 등장하면서 6시간대, 1980년대 새마을호 덕분에 4시간대로 줄더니 이제 2시간18분으로 단축됐다. KTX는 녹색교통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통해 지역거점을 연결하고 육성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4,578 대 93,553'.

지난해 11월 1일 서울~부산 KTX경부고속철도가 2단계 구간(동대구~경주~울산~부산) 완공으로 완전 개통된 뒤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 곳은 울산이다. KTX 2단계 구간이 개통하기 이전인 2010년 10월 한 달 동안 서울(영등포)~울산(현재는 태화강)의 철도승객(새마을호) 통계는 4천5백78명이었다. 같은 기간 김해~울산 항공수송 실적 9만3천5백53명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이었다.

그러나 KTX 2단계 개통 뒤 서울~울산 교통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 6개월간 KTX 승객이 하루 평균 9천 5백여명으로 '폭증'한 것이다. KTX 울산역의 위치가 도심에서 20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에 위치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뜻밖이다.

게다가 울산역 주변은 물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지역은 경부고속도로 나들목과 국도 24호선, 35호선 등과 인접한 교통요충지이기도 하다.

경부축 수송분담률 60퍼센트로 급증… 항공 압도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는 지난 2월 울산역 인근인 울주군 언양읍과 삼남면 일원에 2015년까지 75만평방미터 규모의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월에는 농심그룹이 운영하는 대형 할인점 메가마트가 KTX 울산역세권 12만7천1백97평


조선DB

방미터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울산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KTX 경부고속철도 완전 개통 이후 예상됐던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KTX 경부선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인구가 2011년 하루 평균 10만7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한해 4천억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기대했다. 이러한 전망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총사업비 20조7천여억원을 들여 프랑스 TGV 기술을 도입하며 19년 만인 지난 2004년 4월 완공돼 운영에 들어간 KTX는 우리나라의 지역간 교통체계를 바꾸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방도시 국제회의 급증… 부산은 7배나 늘어

한국철도공사, 국가교통통계데이터베이스 등에 의하면 서울~부산 수송분담률은 KTX 개통 전인 2003년의 경우 항공이 49퍼센트였다. 그런데 KTX 개통 이후인 2008년에는 항공이 24퍼센트로 감소한 반면 KTX는 60퍼센트를 차지했다.

KTX를 활용한 경제활동도 새로운 변화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2005년 6개였던 철도역 임대회의실이 2008년에는 51개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이를 이용한 회의 수는 1백53건에서 17만4백76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방도시에서 국제회의가 늘어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관광공사의 우리나라 주요도시 국제회의 개최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 ▲서울 1백58건 ▲부산 19건 ▲대전 14건 ▲대구 8건이던 것이 2008년 ▲서울 1백93건 ▲부산 1백43건 ▲대전 53건 ▲대구 16건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부산 지역에서 국제회의가 7배나 급증한 점은 놀랍다.

KTX 정차도시의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증가비율의 변화는 KTX개통이 '경제적 효과 이상'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보면 2003~2007년의 산업별 종사자 수 증가율이 천안·아산의 경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64.2퍼센트 ▲보건 및 복지사업 48.7퍼센트 ▲교육서비스업 43.1퍼센트의 순으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특정지역으로 사람과 자본이 몰리는 '빨대효과'다. KTX 개통 이후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잖아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급이 차지하는 외래 급여비 비중은 2004년 22퍼센트에서 2009년 30.9퍼센트로 증가했다. 이러한 원인의 하나로 KTX가 꼽히고 있다.

최근 KTX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지난 2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에서 발생한 KTX-산천의 탈선사고는 코레일 직원이 나사 1개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확인됐다. KTX의 고장 건수는 2009년 23건, 2010년 25건이었다.

역세권 중심 지역개발 성공 가능성 높여

이에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13일 근본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고장이 우려되는 부품은 전량 교체하고 교체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KTX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4일, 오는 2020년까지 전국의 주요 도시를 1시간30분대로 연결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KTX역에서 버스, 전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을 고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 최진석 연구위원은 "KTX를 둘러싸고 '빨대효과'가 우려되기도 하고 개통 초기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성숙기를 거치면 많은 이가 혜택을 누리는 '샤워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오는 2020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총연장 약 5천킬로미터의 철도망이 구축된다.

1시간30분대에 KTX로 전국 연결

2020년 국가교통체계 철도 중심 개편…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국 주요도시를 KTX 고속철도망으로 1시간30분대에 연결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행돼 오는 2020년 완공되는 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시속 2백30킬로미터 이상의 고속화철도를 전체 철길의 절반 수준으로 높여 전 국민의 10명 중 8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는 2020년이면 전국 주요도시가 KTX 고속철도망을 통해 1시간30분대로 연결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작돼 오는 2020년 완공될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지금은 경부고속철도 3백68.5킬로미터에 불과한 시간당 2백30킬로미터급 이상 고속(화) 철도가 2020년에는 2천3백62.4킬로미터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1시간30분대' 고속철도 서비스 범위도 인구의 60퍼센트에서 83퍼센트로 확대된다.

아울러 ▲전체 철도연장은 3천5백57킬로미터에서 4천9백34킬로미터로 ▲복선화율은 49.6퍼센트에서 79.1퍼센트로 ▲전철화율은 60.4퍼센트에서 85.0퍼센트로 높아진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건설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세워지는 중장기 투자계획. 이번에 수립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등에 대응하고, 지난 2010년 9월 발표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개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한다'는 비전 아래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30분대로 연결해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주요거점의 고속KTX망 연결 ▲대도시권 30분대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 ▲녹색 철도물류 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마련했다.

철도 전철화율 85퍼센트로 높아져

우선 전국 주요도시를 1시간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은 적기에 완공하고, 일반철도의 고속화를 통해 KTX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은 2014년,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한다.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노선,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구간을 2014년까지 완공하는 등 고속철도 사업들은 모두 적기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조선DB

일반철도의 고속화 사업에도 역점을 둔다. 일반철도를 시간당 2백30킬로미터급으로 고속화하고, 경부·호남 고속철도와 연계해 KTX 서비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춘천~속초 노선, 월곶~판교, 여주~원주 노선 등 10개 노선의 고속화 사업을 계획기간의 전반기(2011~2015년)에 착수한다. 충청권 철도 논산~청주공항,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등 9개 사업은 후반기(2016~2020년)에 시작해 사업기간 내에 완공한다는 계획. 현재 고속화 사업이 추진 중인 원주~강릉, 중앙선 영천~도담, 서해선 홍성~송산 등 39개 사업 역시 적기에 마칠 계획이다.

둘째,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 접근 30분대 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경의선 용산~문산, 신분당선 용산~강남, 신안산선 안산~여의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한다.

대도시엔 도심접근 30분대 철도망

셋째, 산업단지·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 구축이다.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산업단지·내륙화물기지를 간선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를 확충하기 위해 동해항, 마산신항, 여수율촌산단, 구미산단, 아산산단 인입철도 등 5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광양항, 울산신항, 포항 영일신항, 군장산단 등지 4곳의 인입철도 사업은 적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추진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철도망 확충에 총 88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16조원, 일반철도 46조원, 광역철도 2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예산에는 국비 59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6조원 등이 소요재원으로 조달될 계획이다.

이번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교통체계가 철도중심 교통·물류체계로 전환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철도 여객수송 분담률은 현재의 15.9퍼센트(2008년 기준) 수준에서 2020년 27.3퍼센트로 증가하고, 화물수송 분담률은 같은 기간 동안 8.0퍼센트에서 18.5퍼센트(2020년)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6조8천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7백74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철도망 구축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연간 91조원의 지역총생산이 추가로 발생(9백74조→1천65조원)하고, 2020년까지 철도건설 과정에서 1백98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백3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KTX경제권연구소장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개념은 KTX네트워크를 활용해 국토의 시공간을 단축하고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KTX역이 들어서는 거점도시들은 교통과 정보, 상업과 업무, 주거, 어메니티 기능까지 갖춤으로써 지역경제, '5+2' 광역경제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

글·박경아 기자

복합환승센터로 변신… 대구경제 기관차로

2014년 공사 마무리… 경제효과 3조원·고용효과 1만5천명 예상

동대구역은 공사중이다. 증가하는 승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다. 내년이면 완공된다. 그 후에도 공사는 이어진다. 역 광장을 넓히고 도로도 새로 낸다. 정점은 2014년 완공 예정인 복합환승센터다. 3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5천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복합환승센터 주변은 민간주도의 역세권이 개발된다. 대구시는 동대구역의 업그레이드가 대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X가 대구 경제의 기관차가 되고 있다.

평일 오후였지만 동대구역은 KTX 이용객들로 붐볐다.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편의점 등이 늘어선 역사 내의 맞이방(대합실)도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동대구역은 서울역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역이다. KTX 하루 이용객이 4만6천명에 달한다.

박노주 동대구역 부역장은 "최근 동대구역에서 부산을 잇는 2단계 KTX가 개통되면서 이용객이 늘고 있다"며 "지난해 1천5백억원이었던 매출액이 올해는 1천6백70억원으로 10퍼센트 이상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타공인 경북 지역 교통의 중심지인 동대구역이 진화하고 있다. 먼저 역사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2단계 KTX가 개통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이용객들에 대응하기 위해 증축공사가 한창이다. 내년이면 공사가 완료된다.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한데 모아 교통효율 극대화

내년부터는 새로운 공사가 시작된다. 현재 역 정면을 통과하는 동대구역 고가도가 확장된다. 낡고 좁은 현재 고가도 대신 넓은 고가도를 들이고 역 광장도 넓힐 계획이다. 역 뒤편에도 역에 접근할 수 있는 성동고가도가 들어온다. 공사가 완료되면 동대구역의 이용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공사는 2014년에 마무리된다.

여기까지는 소소한 업그레이드에 불과하다. 진짜 변화는 내년



조선DB

낡은 모습을 버리고 다시 태어날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에 착공 예정인 '복합환승센터'다. 복합환승센터란 열차에서 열차를 갈아타는 것은 물론 열차와 버스 등 종류가 다른 교통 수단을 한곳에서 환승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를 위해 현재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한 곳으로 모아 보다 효율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이런 식이다. 현재 동대구에서 경북 영천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열차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두 경우 모두 좌석이 차지 않아 적자운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버스터미널과 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교통수단을 없애기도 힘들다.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한곳에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열차노선은 없애고 버스만 운행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한 불편도 없다. 부득불 열차에서 버스로 갈아타야 하는 경우엔 오히려 편의성이 향상된다. 버스회사의 수익도 좋아진다. 철도공사도 적자노선이 없어지는 만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교통수단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업무, 문화, 교육, 테마파크, 쇼핑몰 등 다양한 시설도 들어선다. 지난 4월 센터 개발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주)신세계에 따르면 지하 7층, 지상 11층 규모의 센터에는 환승시설 외에 오피스와 컨벤션센터 등 업무시설, 영화관과 대형서점 등 문화·교육시설, 한방의료센터와 키즈테마파크 등 테마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조형익 동대구역장은 "KTX와 일반열차, 버스 등 여러 종류의 교통수단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통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며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성공하면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금융 등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로 육성 계획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대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 그것이다. 대구시는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의료, 금융, 상업, 업무 중심의 복합단지를 개발해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KTX 역세권 특성화를 위한 동대구 역세권 개발'이 그것이다.

대구시의 KTX 역세권 개발은 날로 어려워지는 대구 경제가 재도약하는 발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주력 산업인 섬유산업이 위축되고, 교통이 발달하여 의료와 유통 수요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대구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조선DB

경북 지역의 교통 중심지인 동대구역사 안. 언제나 붐비는 동대구역은 최근 2단계 개통 이후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경제 기여효과

-	계	공사단계	운영단계(연간)
계	**29,535억원**	**20,807억원**	**8,728억원**
공사비	5,440억원	5,440억원	
생산유발효과	17,100억원	11,385억원	5,715억원
부가가치효과	6,995억원	3,982억원	3,013억원
고용유발효과	14,500명	9,200명	5,300명

자료 대구광역시

KTX 역세권 개발은 과거의 번영을 되찾기 위한 대구시의 '반격카드'다. KTX의 전면 개통과 더불어 경제활동과 생활공간도 광역화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계획이다. 영남권 행정·문화·학문의 중심이라는 점, 영남권 교통의 중심지라는 점, 배후에 방대한 산업과 관광자원이 있다는 점을 활용한다면 광역경제의 중심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구 동부권 개발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동대구 지역은 경부선과 대구공항 등 대규모 기반시설이 들어서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진 것도 물론이다. KTX 역세권 개발은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대구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크게 2단계로 진행된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는 1단계에서는 민자유치 방식으로 역지구를 개발한다. 이 기간에는 복합환승센터, 복합의료센터, 글로벌디자인센터 등이 동대구역 옆에 건설된다. 2단계 사업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자생개발 방식으로 역세권 개발이 중심이다. 학교, 공동주택, 상업지구, 국제비즈니스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G

글·변형주 기자

'수도권보다 가까운' 아산신도시

서울 30~40분, 대전 20분 거리 중부권 거점…수도권 인구 흡수 효과

서울에서 천안·아산은 다른 육상교통수단이라면 2시간 정도 걸릴 거리다. 하지만 KTX는 이를 30~40분 남짓으로 줄여놓았다. 교통의 획기적인 발달은 이곳에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인구를 나눠 질 신도시 개발을 꿈꾸게 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미 시작됐다. 이 지역 인구가 KTX 개통과 함께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마다 대표적인 번화가가 있잖습니까. 천안의 경우엔 과거 천안역 부근이 천안의 명동으로 불렸는데 지금은 버스터미널이 있는 신부동 일대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완공되면 천안아산역 부근이 최고의 번화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이선관 천안아산역장)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들어설 아산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아산신도시 1단계인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됐다. 주택, 오피스, 상업시설 등 '내용물'이 채워질 부지공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건물들은 이미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기다리거나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화점, 할인점 등 주요 상업시설도 영업을 시작했다. 손욱 LH아산사업본부 과장은 "현재 주택은 분양이 거의 완료됐으며 용지를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약 70퍼센트가 분양된 상태"라고 전했다.

백화점·할인점 등 상업시설 속속 오픈

KTX 천안아산역의 문을 열고 나가면 첫눈에 들어오는 건물이 있다. 아산신도시의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와이(Y)시티'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인 '펜타포트'가 그것이다. 와이시티는 약 1천5백 세대의 대단지다. 공사를 마치고 집주인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다. 반



조선 DB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한 아산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아산신도시의 랜드마크인 국내 최고층 빌딩 펜타포트(66층).

대편으로 눈을 돌리면 66층 규모의 '펜타포트'를 볼 수 있다. 현재로선 국내 최고층 빌딩이며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펜타포트 맞은편에는 지난해 말 개점한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이 있다. 원래 있던 천안점을 확장 오픈했다. 연면적이 11만5백30제곱미터로 천안점에 비해 5배나 크고 영업면적은 4만9천5백86제곱미터로 3배 커졌다. 갤러리아명품관을 설계한 네덜란드의 건축가 벤 반 버켈이 설계를 맡았다.



건축가 벤 반 버켈



조선 DB

백화점과 할인점 등 유통업체들이 아산신도시에 속속 입주하고 있다. 사진은 천안 아산역 인근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갤러리아백화점이 기존 점포에 비해 몇 배나 큰 점포를 새로 지은 것은 이 지역이 그만큼 미래 성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천안아산역이 인접한 데다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계에 위치한 만큼 향후 아산신도시가 제자리를 잡은 후엔 지역의 중심지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지금도 예상보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미래의 성장성이 크다고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회사 홍보팀 관계자는 "대전의 대표 백화점인 갤러리아 타임월드점의 경우도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전해 크게 발전을 한 케이스인데 센터시티점도 같은 경로를 겪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버스 노선이 빈약하고 주변이 개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예상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되면 이 지역 대표 백화점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할인점들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와이시티 인근의 상가건물인 '와이몰'에는 할인점인 롯데마트가 지난 3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7월께 문을 연다는 계획 아래 점포를 짓고 있다.

주변에 대기업 공장 입주로 자족기능도

천안아산역은 처음부터 아산신도시 건설을 염두에 두고 입지가 정해졌다. 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 수용할 수 있는 거점도시를 만들려는 계획이었다. 중국과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대두된 환황해 경제권 진출을 위해서도 새로운 도시가 필요했다.

아산신도시는 위치적으로 중부권 거점도시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서울과 불과 80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 서울과 대전의 중간에 있다. KTX가 개통되면서 이동시간은 30~40분으로 줄었다. 대전은 20분이면 갈 수 있다.

실제로 천안시와 아산시는 KTX 개통과 신도시 건설이 맞물리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산시는 2004년 20만명에서 지난해 27만명으로 6년 사이에 인구가 30퍼센트 이상 늘었다. 특히 1단계 아산신도시에 포함돼 있는 배방면은 2007년 2만명에서 지난해 5만명으로 인구가 4년 만에 2.5배나 불어났다. 수도권 인구분산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아산신도시는 자족기능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인근에 많은 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탕정 지역엔 삼성디스플레이시티가 있다. 이곳에는 대규모 LCD공장이 입주해 있고 삼성의 5대 신사업 중 하나인 태양전지와 모듈 생산 공장도 들어설 계획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AMOLED 제조 라인도 구축될 예정이다. 인주지구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있다. 중소기업도 2천여 개에 육박한다.

아산신도시 건설은 2단계로 진행된다. 천안아산역을 감싸고 있는 아산배방지구가 1단계 사업이고 아산배방지구 배후 넓은 지역의 아산탕정지구가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된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아산배방지구는 약 3백만제곱미터 규모로 도심기능이 강하다. 중고층아파트와 고층주상복합아파트,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주로 들어서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현재



이현남 기자



현재 가건물로 운영되고 있는 익산역(왼쪽)과 2014년 완공 예정인 KTX익산역 조감도. 익산의 대표적 특징인 보석과 미륵산, 광활한 대지를 형상화한 신축 역사는 익산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 최대 '교통 허브'로 힘찬 도약

서울까지 1시간8분… 호남·전라·장항선의 분기점으로 전국 상대 마케팅

호남·전라·장항선 철도 분기점인 익산역이 웅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와 신축 역사 공사가 한창인 익산역은 역 주변에 복합환승센터 시공을 앞두고 있다. 다양한 교통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역세권 개발로, 익산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가건물로 지어진 좁은 익산역에는 하루종일 승객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그 옆에서는 선상역사로 새롭게 지어지는 익산역사 공사가 한창이었다.

KTX 익산 선상역사는 총 7천2백8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된다. 역사는 익산의 대표적 특징인 보석과 미륵산, 광활한 대지를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건립되어 익산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완공 예정이다.

역 광장은 교통광장으로 조성된다. 택시와 시외버스가 역 입구까지 진입할 수 있어 KTX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철로 위에는 동측(중앙동)과 서측(송학·모현동)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선상연결 데크가 설치된다.

서측광장에는 KTX 이용객을 위한 환승시설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4백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된다.

KTX 이용 시간도 크게 단축된다. 현재 공사 중인 KTX 호남고속철도가 2014년 개통되면 익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8분이면 닿을 수 있다. 현재 익산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는 KTX로 1시간50분 걸린다. 이로 인한 익산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5년 내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

익산역은 연간 약 1백20만명이 이용하는 교통의 요지다.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철도 분기점으로 환승역의 기능이 크다. 익산은 철도뿐 아니라 전주, 군산, 서천 등 주요 도시로 이어지는 다양한 교통



조선DB

시설이 발달했다.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는 익산역을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다양한 교통수단이 연계되는 주요 교통 중심축에 환승시설과 문화·복지·상업 등의 기능이 복합된 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복합환승센터는 익산역 바로 맞은편에 조성된다. 역과 이어지는 센터 내에는 고속버스 12개, 시외버스 32개, 시내버스 10개 이상의 환승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영복 익산역장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에는 철도, 버스, 복합환승지원시설을 이용하는 1일 이용객이 약 6만명 정도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익산역은 호남 최대의 교통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에는 영화관 등 문화시설과 함께 컨벤션센터, 업무시설, 호텔 등 다양한 비즈니스 시설이 들어선다. 주상복합시설, 생활편익시설 등의 주거 공간과 보석공원, 한방공원 등 쉼터도 조성될 예정이다.

익산시청 도시개발과 김성도 팀장은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KTX 정차역인 익산역에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되면 환승 역할 외에 주요 회의장으로 활용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연계산업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익산 역세권 중심 반경 30킬로미터 이내를 산학연관 연계 권역범위로 설정했다. 익산역이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라는 점을 활용해 귀금속보석산업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등이 조성 중이다. 보석축제, 미륵사지관광지 등 다양한 문화관광도 개발하고 있다.

익산역에서 18년간 매점을 운영해 온 백남길(64)씨는 "역사가 신축되고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 역 이용객들이 크게 늘고 주변도 많이 발전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발맞춰 익산역은 활발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9일에는 고객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익산역 홈페이지가 개통됐다. 코레일 홈페이지와 별도로 익산역이 자체 운영하는 웹사이트다.

역 반경 30킬로미터 지역 산학연계권 설정

익산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익산에서 남이섬, 정동진 등 유명 관광지로 떠나는 '지역단위 관광열차'다. 갈아타는 불편함 없이 열차가 직통으로 특별 운행돼 이용객들의 인기가 높다.

지난해부터 학교 등 단체를 대상으로 'KTX생애첫체험'이란 여행상품도 판매 중이다. 홈페이지 접수와 함께 수도권과 대전권에 위치한 역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우편 홍보도 한다. 기존의 여행상품과 달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 위주의 새로운 여행지 구성으로 인기가 높다.

여기에 단체할인, KTX의 이용편의성을 살린 학교 맞춤형 여행패키지로, 도입 초기인 지난해 17개 학교가 신청해 6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도 벌써 19개 학교가 이용했다. 인기가 높아지자, 익산역은 'KTX생애첫체험'을 섬 지역의 노인, 학생들로까지 확대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곳에 사는 이들에게 여행상품 가격을 대폭 낮춰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역사 주변에 코스모스도 심었다. 김영복 익산역장은 "가수 나훈아가 부른 '고향역'의 배경이 바로 익산역"이라며 "'코스모스 피어 있는 정든~'으로 시작되는 노래 가사처럼 익산역 주변에 코스모스를 심어 추억의 장소로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적극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익산역은 단순히 거쳐 가는 환승역이 아닌 기분 좋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역으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김 역장은 "앞으로도 '고향역' 노래처럼 익산역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북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익산역을 많이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

글·이제남 기자

교통 확 뚫리자 '도시재생'에 성공

일본·프랑스, 지자체서 특성살린 도시계획·세제 혜택으로 민간투자 유치

KTX가 개통된 지 7년, 역세권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아직 '속도'가 붙지 못했지만 각 도시마다 특성을 살린 도시계획이나 전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에 뛰어들어 성공한 해외 도시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조선 DB

일본 나고야역 JR센트럴 타워즈는 나고야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KTX 역세권 재개발은 도시 활성화 사업과 관계된 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가 "사업 시행 시 동시, 일괄 건설할 게 아니라 도시별로 수요대응형 단계별 개발 및 건설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역사 신축 후 관리에 있어서도 "소유 주체에 따른 배타적 관리 대신 협의를 통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해외 고속철도 역세권 발전 사업은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단계별로 이뤄져 왔다. 홍콩의 충콴오(Tseung Kwan O) 역은 국토 특성상 고밀복합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발됐다. 홍콩지하철 공사인 MTRC가 계획에서부터 건설, 운영까지 도맡아 독립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발했다. 반면 일본 역세권 개발은 하나같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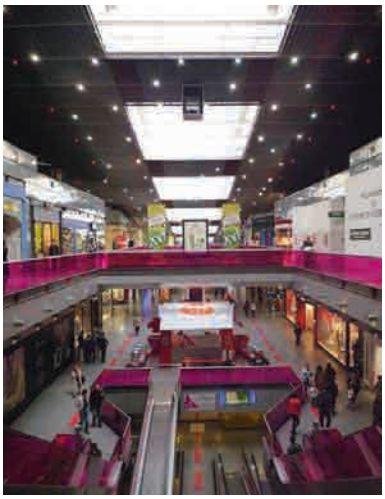
역세권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판단하에 일본의 지자체들은 평균 9백퍼센트대의 매우 높은 특별용적률을 적용해 줬다.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을 경감해 줬다. 금융 및 세제지원을 통해 우수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주민 편익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이나 공동시설, 교통체계 정리 등의 개발비용도 지자체 도시계획 사업의 하나로 병행 개발했다.

일본 나고야 / 역세권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개발

일본 역세권 개발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나고야다. 나고야는 1964년 신칸센 개통 이후 오히려 도쿄와 오사카에 도시 기능을 뺏겨 지역경제의 위기를 맞이하는 이른바 '빨대 효과'에 시달렸다. 서울과 부산 사이에서 정체를 겪어오다 2004년 KTX 개통으로 오히려 빨대 효과가 가속화된 대구와 비슷하다.

나고야는 역사 건립과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했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1989년 '대도시 택지개발 및 철도정비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이것으로 역사 부지 확보, 철도건설과 도시개발의 일체적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후 1990년부터 역세권 개발을 계획하며 '빨대 효과'에서 탈출했다. 1992년 7월 호텔과 백화점 운영을 위한 2개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중심상업·업무지구로 역사건물을 신축했다. 2002년에는 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2002년 역세권이 '도시재생 긴급 정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변으로까지 확대, 개발

한국철도연구원





프랑스 릴 역은 TGV와 유로터널 개발의 최고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사진 왼쪽부터 주상 레저 복합 지역, 연회 전시장 지역, 비지니스 지역으로 특화시킨 릴 역사의 모습.

되고 있다. 현재 나고야역은 신칸센, 지하철, 임해 고속철도의 교차점 역할은 물론 JR 센트럴 타워즈는 나고야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역사와 문화의 도시 교토는 도시 성격에 걸맞게 현대적 건축미를 접합한 역사를 선보이고 있다. 교토 역사에 한해 고도제한 완화 등 특례를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영국 워털루 역처럼 교토 역사에선 문화 공연이 열린다. 지역활동 및 시민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술관 티켓 판매대가 설치돼 있는 우에노 역, 만남의 광장이 있는 나고야 역 대합실 등도 단순 역의 기능이 아닌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노선 개통에 따른 역 리모델링으로 성공한 곳도 있다. 도쿄 아키하바라 역은 쓰쿠바 익스프레스 개통에 맞춰 터미널 기능을 강화하면서 주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벌였다. 이를 통해 지역 개발과 연계한 기반시설을 재정비했다.

프랑스 릴 / 산업도시에서 '유럽의 교통허브'로

프랑스의 북동부에 있는 릴 시는 파리에서 2백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릴은 고속철 개통 후 현재 수도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공간적 제약을 고속철을 이용한 이동 시간 단축으로 극복한 것이다. 실제로 많은 파리 대학생이 물가가 높은 파리 대신 릴 역 주변에 모여 살고 있다.

릴은 고속철도를 통해 도시 재생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1970년대 이후 릴은 석탄과 철강, 섬유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도시 전체가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1993년 파리~릴 TGV 개통, 파리~런던 유로스타 개통을 이용, 유럽을 연결하는 '허브 도시'로 변화하자는 전략을 세운다. 릴은 유로스타 개통에 맞춰 1994년 민관 합자개발회사인 '사엠 외랄릴'(Saem Euralille, 이하 사엠)을 설립했다. 사엠이 개발 주체가 되고 자본금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이 합작 투자했다. 역사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됐고, 역세권에는 호텔·쇼핑몰·국제박람회 전시장·콘서트홀 등이 들어섰다. 이를 통해 일자리 1만2천 개가 새로 창출되면서 실업률도 해소됐다.

단순한 '교통연결'이 아닌 지역경제 발전 이어져

한국이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에 성공한 해외 도시 사례에서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점은 고속철 개통이 단순히 '교통연결'이 아닌 지자체의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지역 경제발전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성공의 안정성을 보장한 도시계획은 민간투자자로 하여금 성공에 대한 확신을 주어 적극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이어졌다. 도시 개발 여건이나 역사 유형, 도시 수요를 고려한 신축, 증축, 리노베이션으로 다각화를 시도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연구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원 마련이 문제겠지만, 지방 정부가 역세권 개발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도시계획을 명확히 세우면 민자사업 유치도 보다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세권 개발 시 도시계획 전체를 생각해 공원이나 도로 정비 등 공익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성이 있는 것은 민간사업자들이 나서면 된다"며 발전을 위한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G

글·박근희 기자

KTX-산천의 우수성 못 살린 '안전 불감'

잦은 고장도 노하우 축적 단계… KTX가 잘 달려야 경제권도 성공

KTX는 항공기 수준의 안전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최근 우리 기술로 만든 KTX-산천이 잇따른 고장으로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안전관리를 위한 감독체계 구축은 물리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코레일과 관련 업체의 모든 구성원이 합심하여 안전한 고속철도를 만들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고속철도를 도입하여 운행을 시작한 지도 벌써 7년을 넘어서고 있다. 처음 도입한 KTX는 프랑스의 기술로 제작했지만, 지난해 3월 상업운행에 들어간 KTX-산천은 국산화율을 87퍼센트로 끌어올리고 순수 우리 기술로 설계·제작한 최초의 국산 고속열차이다.

처음 도입한 KTX는 시험기간을 포함하여 거의 10년 동안 운행한 결과 부품 노후화로 인해 최근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막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 KTX-산천은 지난 14개월 동안 41건의 고장과 결함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시로 운행 차질을 빚고 있어 KTX에 대한 이용객과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켜 왔다.

수시로 운행 차질 빚어 국민 불안 가중

지난 2월 부산을 출발해 광명역으로 들어가던 KTX-산천이 터널 내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해 KTX 안전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 코레일과 국토해양부는 KTX 안전대책으로 항공기 수준의 안전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도 각종 고장과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

급기야는 KTX-산천 2호차의 사전검수 시 모터감속기의 고정대에서 균열이 발견돼 코레일은 이 열차의 운행을 전면 중지하고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정밀 재점검을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KTX-산천이 최근에 운행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잦은 고장과 결함이 발생하는 것은 설계와 제작 및 시운전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고속열차의 설계는 선로상태나 운행방식, 그리고 지리·기후 같은 고속열차 운행환경의 차이와 장치나 부품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재질과 제조 역량의 차이 등을 모두 감안하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기술로 처음 설계한 경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며 KTX-산천의 잦은 고장도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또 다른 면으로는 조기투입과 시운전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기존 KTX는 이미 검증된 차량인데도 1년6개월의 시험운행 후 국내로 도입하고 다시 1년의 시운전을 거쳐 경부선에 투입했다.

그러나 KTX-산천의 경우는 제작사에서 11개월간 자체 시운전과 6만킬로미터 본선 시운전을 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계·제작한 만큼 기존 KTX보다 더 충분한 시운전과 검증과정을 거쳐 노선에 투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조기투입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충분한 시운전·초기고장 안정화 후 정상운전

새로 제작한 대부분의 기계·장치들은 운전 초기에 돌발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초기고장은 정상적인 운전에 들어가면서 점차 안정화하여 고장률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위험도가 큰 기계·장치를 새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서 초기고장을 안정화한 후 정상운전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KTX-산천의 경우는 이러한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이 있다고 본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큰 결함이 발견돼, 늦었지만 제작사에 정밀 재점검을 요청하게 되고 운행간격을 줄여 가며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조치를 한 것은 그나마도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중대한 결함이 시운전기간 내내 방치되어 오다가 사전검수 시에 발견되었다는 것은 KTX의 안전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기존 KTX를 포함하여 고속철도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로 및 열차의 점검과 정비 작업이 외주로 전환되고, 안전점검 주기가 부품의 고장주기와 상관없이 연장되고 있다. 또 안전점검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무리한 열차편성과 성과위주의 정시율 목표 등이 KTX


조선DB

기지창에 줄지어 서 있는 KTX 고속 열차들. KTX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고속열차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안전 조치와 인식이 필요하다.

안전을 뒤흔드는 근간이 되고 있다.

부품의 이력관리와 계획된 정비·점검이 진행되는 항공기 수준의 안전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리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코레일 및 관련 업체의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합심하여 안전한 고속철도를 만들겠다는 의식을 가져야만 가능할 것이다.

리콜이 당장은 불리해도 신뢰도 높여

제품을 리콜한다는 것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에 상당히 불리함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고속열차를 세계 시장에 그냥 내놓고 인정받을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잦은 고장을 기술적인 노하우를 축적하는 단계라 생각하고 더욱 신뢰도가 높은 고속열차의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KTX-산천은 순수한 우리 기술력으로 기존 KTX보다 시간당 30킬로미터 정도 더 빠른 고속열차를 제작했다는 것과 가변성 열차편성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인 점, 객차의 모든 좌석을 진행방향에 맞출 수 있는 구조로 한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통신(IT) 기술을 이용하여 승객에게 다양한 정보전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초기고장이 안정화하는 단계로 접어들면 일본의 신칸센이나 유럽의 고속열차에 결코 뒤지지 않는 우수한 고속열차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열차의 운행횟수를 줄이면서까지 리콜과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만큼, 정부 당국과 철도전문가 및 안전전문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고속열차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과 대외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코레일의 철도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철도구성원의 안전의식 고취와 철도안전 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결의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G



글·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아니 간 듯 다녀오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자연에 보답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만 기억하면 녹색캠핑은 이루어진다.

즐기자 1박2일! 지키자 자연보호

음식물 잔반 줄이고 쓰레기 되가져 오는 게 녹색캠핑 첫걸음

아니 간 듯 다녀오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자연에 보답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만 기억하면 녹색캠핑은 이루어진다. 내가 가져간 것은 모두 되가져 오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은 내가 남긴 것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도시의 길을 거닐어도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계절이 왔다. 한낮의 햇볕은 따뜻하고 밤공기는 쌀쌀해서 모닥불을 즐길 수 있는 계절이다.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즐길 수 있는 기분 좋은 푸름이 가득하다. 캠핑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우리 캠퍼들은 전국의 멋드러진 자연 풍경을 찾아 본격적인 나들이에 나설 것이고 자연은 우리에게 감성 충만한 선물을 안길 것이다. 자연은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것이다.

이토록 고마운 자연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자. 자연을 대하는 하나의 원칙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아니 간 듯 다녀오는 것이다. 마치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할 수 있게 지켜 주는 것이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다시 오고 싶은 장소가 될 수 있게 하자. 촉촉한 안개, 푸른 나뭇잎, 향기 가득한 꽃, 물고기가 헤엄치는 강, 불타는 저녁 노을, 쏟아질 듯 안겨 오는 별들의 반짝임을 기억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어린 시절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작은 나뭇가지도 곤충의 먹이이자 서식지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에도 자연은 괴롭다. 괴롭히려고 한 행동은 아닌데 자연은 힘들어한다. 이유는 우리가 자연을 모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도 그 사람을 잘 안다면 소소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기쁨 가득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자연을 알면 작은 노력으로도 많은 것을 지켜 줄 수 있다.

조선DB

죽은 나뭇가지를 주워 화로에 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 모여 앉아 캠핑의 낭만을 즐기는 동안에도 자연은 괴로워한다. 죽은 나무는 곤충의 먹이이자 서식지다. 죽은 나무가 보금자리였던 곤충의 알은 불과 함께 사라진다. 화롯불의 열기가 땅으로 전해져 땅속에 살고 있는 곤충과 땅속에 자리 잡은 나무와 풀의 뿌리도 힘겨워한다. 불의 열기와 가스가 공기 중으로 올라가 키 큰 아름드리 나무의 나뭇잎이 말라 죽어 간다. 자연휴양림에서 모닥불을 금지하는 이유는 산불이 우려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무와 곤충을 죽이는 행위이기에 금지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캠핑을 하는지는 내가 어떻게 캠핑을 준비하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캠핑을 준비하며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가,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 나의 캠핑 모습이 정해진다.

녹색캠핑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캠핑의 중심에 가족이 우뚝 서 있다면 녹색캠핑도 쉽게 다가온다. 명품 랜턴을 우리 아이에게 물려주겠다는 부질없는 소비의 이유보다 자연의 모습을 우리 아이 가슴속 가득 안겨 주겠다는 첫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가족과 함께 자연이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노을 지는 해변은 부부의 사랑을 깊어지게 하고, 맑은 숲 속 개울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웃음을 안겨 주는 자연에 더욱 관심을 가져 보자.

모닥불 피우면 아름드리 나무의 잎 말라죽어

아니 간 듯 다녀오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자연에 보답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만 기억하면 녹색캠핑은 이루어진다. 내가 가져간 것은 모두 되가져 오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은 내가 남긴 것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고, 배출된 쓰레기를 분류하는 방법을 알면 좋다.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알면 쓰레기를 값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캠핑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음식을 먹을 만큼만 미리 손질해서 준비해 가는 것이다. 캠핑장 설거지터의 바구니에 쌓여 있는 엄청난 음식물쓰레기를 보고 기겁한 적이 있다. 그 캠핑장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나누어 주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봉투에 담긴 음식물쓰레기는 볼 수가 없었다. 조금 귀찮아서,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마구 버리는 것 같았다. 게다가 담긴 쓰레기를 보니 멀쩡한 음식들이 태반이다. 먹다가 배불러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버리는 것이다.



'폼생폼사' 고가 캠핑장비 자제하자

캠핑과 아웃도어 시장이 커지는 만큼 생산업체들의 '고가 마케팅'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해외 수입 명품'으로 불리는 몇몇 브랜드는 현지 소비자 가격보다 2배 가까이 '뻥튀기'해서 가격을 높이고 있고, 국내 브랜드 역시 이들 가격에 발맞춰 고가 제품 위주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고가'로 분류되는 고어텍스 제품의 경우 원가가 판매가의 25퍼센트 정도여서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카페, 블로그 등의 커뮤니티에서는 캠핑장비 리뷰와 자랑으로 넘쳐나고 캠핑후기에는 새로 구입한 캠핑장비와 먹고 마시는 모습으로 가득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공동구매 소식이 들려오고, 사고 싶은 캠핑장비들은 너무나도 많다. 캠핑장에서는 어떠한가. 캠핑 이웃들과 나누는 대화의 대부분을 캠핑장비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집에 돌아와서는 남들은 어떤 캠핑장비를 쓰는지, 새로운 캠핑장비로 무엇이 있는지를 보느라 하루 종일 인터넷을 헤매고 다닌다. '지름신'과 '바꿈신'을 영접하느라 하루하루가 바쁘다. 다시 찾은 캠핑장에서는 지름신을 영접하라며 전도사가 되기를 자처한다. 이쯤되면 이미 가족은 사라진 지 오래다.

녹색캠핑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과소비와 과식이다. 많이 사고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고 조금 더 먹는 것이 과소비와 과식이라 생각해야 한다. 좀 적게 먹은 듯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고 하지 않는가.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녹색캠핑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 캠핑 식단을 미리 계획해서 준비하면 음식물 낭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캠핑장에 도착해서 처음 먹는 한두 끼 정도는 미리 준비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캠핑을 하며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지는 쓰레기봉투를 미리 준비해 가면 쉽게 알 수 있다. 일반쓰레기용과 음식물쓰레기용을 둘 다 준비해 가서 쓰레기를 되가져 오자. 캠핑을 마치고 쓰레기봉투에 담긴 양을 확인하면 다음 캠핑에서는 조금 더 줄이려는 노력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 지역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자. 국립자연휴양림과 일부 오토캠핑장의 입구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다.

녹색캠핑은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토캠핑이 소비문화가 아니기에 캠핑 그 자체가 녹색캠핑이다. 가족과 함께 푸름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녹색캠핑이다. 아내와 함께 텐트 문을 열고 나와 맞이하는 아침 햇살에 감탄하고 아이와 함께 맑은 모래 한 알에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삶을 사랑하자. 이제는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 가족의 감성에 충실하자. 그것이 녹색캠핑이다. G

글 · 감홍규 (네이버 카페 '캠핑 프렌즈' 운영)



느릅나무 수십 그루가 숲을 이룬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미락숲. 급수대도 없고, 화장실도 간이화장실 하나 있을 뿐이지만,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분위기의 멋진 오토캠프장이다.

쉿! 여기에 오면 자연이 뛰놀고 있어요

자연의 모습을 우리 아이 가슴속 가득 안겨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녹색캠핑을 떠나보자. 노을지는 해변은 부부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하고, 맑은 숲 속 개울은 아이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준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녹색캠핑 명당 10선을 소개한다.



강승완 기자



강홍규

용화산 자연휴양림은 숲 해설 프로그램이 유명하다.

장실과 개수대 시설도 갖춰져 있으며 마을주민이 수시로 관리하기 때문에 깨끗하다. 떼뿌리해변에서 작은 산 하나를 넘으면 영화 〈연애소설〉의 촬영지로 알려진 죽노골해변이 나온다. 금빛모래가 찬란한 이국적인 경관을 볼 수 있다.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카페리 여객선을 타고 갈 수 있다. 배 출항시각과 운항횟수는 물때와 기상조건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니 사전 확인해 두어야 한다. 또한 먹을거리나 생필품을 구하기가 여의치 않으므로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바로 옆 덕적도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소야도

문의 덕적면사무소(032-899-3717), 대부해운(032-886-7813)

1 소야도 떼뿌리해변

고운 백사장과 해안절벽… 물때 잘 맞춰야

인천 덕적도의 부속섬인 면적 3.03제곱킬로미터의 작은 섬으로 소야도 해안은 고운 백사장과 경치 좋은 해안절벽으로 이어져 있다. 교통이 그리 편하지 않고 뭍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적이 많지 않다. 그만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다.

떼뿌리해변은 완만한 경사와 고운 모래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섬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캠핑공간 및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화

2 임계 미락숲

느릅나무 병풍 삼아 휴식… 입장료 없어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소재지 남쪽에는 느릅나무 수십 그루가 숲을 이룬 미락숲이 있다. 급수대도 따로 없고 화장실은 간이화장실 하나가 있을 뿐이지만, 그런 불편함만 감수하고 나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분위기의 멋진 오토캠프장이다.

장마가 크게 지면 혹 물에 잠길지도 모르겠다 싶은 이곳 강안 둔덕에 희귀한 느릅나무숲이 조성된 것은 역시 장마 때문이라 한다. 이 느릅나무 군락지를 미락숲이라 이르는 것은 이곳 마을 이름이 미락동이기 때문이다.

미락숲은 백두대간상의 피재(삼수령) 일원에서 발원한 골지천 물줄기에 임계천이 합해지는 합수머리에 위치한다. 흐르는 물의 조

화로 형성된 넓은 평지에 어림잡아 50여 그루의 아름드리 느릅나무가 숲을 이루었다. 제각각 넓게 터를 잡더라도 대형 텐트 30동쯤은 거뜬해 보인다. 입장료도 관리비도 없다. 과거 마을관리휴양지여서 주민들이 관리했으나 2002년 태풍 루사 때 일시 망가진 뒤 임계면에서 기본적인 관리만 하고 있다.

위치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 **문의** 033-562-6301(임계면 주민센터)


강홍구

1

3 춘천 용화산자연휴양림

숲 해설 프로그램 유명… 전기 사용 콘센트 설치

국립자연휴양림은 숲 속의 향취를 가득 느낄 수 있어서 좋다. 또한 숲 해설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연을 더욱 가깝게 접할 수 있다. 덱 시설에 텐트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큰 텐트는 사용할 수 없다. 2.5미터 정도 크기의 돔텐트를 가져가야 한다.

자연휴양림은 차량을 주차장에 두고 짐을 옮겨야 하는데, 용화산자연휴양림은 캠프장 주변을 따라 차가 이동하는 길이 있다. 덱 가까이 짐을 부릴 수 있어 편리하다. 덱마다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어 온수 샤워도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무엇보다 키 큰 나무 속에서의 캠핑은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준다. 용화산자연휴양림의 숲 해설 프로그램은 유명하다. 숲 해설사가 친절하고 자상하게 해설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도 잘 따른다. 바로 옆에 수량이 적당한 맑은 개천이 흐르고 있어 물놀이하기에도 좋다. **위치**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산102 | **문의** 033-243-9261

4 소백산 천동관광지 자동차야영장

밤에는 쏟아지는 별빛…
도담삼봉 주변 볼거리 많아

우리나라 첫 국립천문대가 있는 소백산은 말 그대로 쏟아지는 별빛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소백산에 위치한 천동관광지 자동차 야영장은 가을이 특히 좋다. 천동관광지에서 좀 더 올라가면 다리안관광지가 나오는데 이곳의 단풍은 절경이다. 밤에는 쏟아지는 별빛을, 낮에는 쏟아지는 단풍을 경험할 수 있다.

주변에는 도담삼봉, 광공업전시관, 고수동굴 등 볼거리가 가득한 것도 장점이다. 최근에는 야영장 규모도 확장하고 시설도 많이 좋아졌다. **위치**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천동리 천동국민관광지

문의 043-420-3589

5 포천 국망봉자연휴양림

별이 빛나는 밤 볼만… 물놀이·야생화 감상도

소백산의 별을 보기 어렵다면 국망봉으로 가자. 포천 최고봉 중 하나로 손꼽히는 국망봉도 수많은 별빛을 선사해 준다. 야영장에서 위아래의 숲길을 따라 걸으며 수려한 경치를 만끽할 수 있다.

5팀 이상의 단체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맑은 계곡이 있어 물놀이하기에도 좋다. 화장실과 개수대는 야영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지만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야생화와 경치를 생각하면 안 가볼 수 없는 곳이다.

위치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장암리 산74번지 | **문의** 031-532-0014

6 태안 사목해수욕장

아담하고 조용한 해변… 해송 아래 텐트 운치

여름에 상대적으로 한적한 바닷가를 가고 싶다면 사목해수욕장이 있다. 길이 1킬로미터의 두꺼운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 해변 경관이 아름답지만 아담하고 조용한 해수욕장이다.

화장실이 떨어져 있어 불편하지만 한여름에도 한적한 바닷가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다에서 모래가 많이 밀려오는 지역이어서 사목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바닷가 언덕 위 해송 아래 텐트를 설치하고 언덕 아래 바다에서 즐길 수 있다.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내리 | **문의** 041-670-2433

1 딴산유원지를 따라 걸으면 인공폭포를 만날 수 있다.
2 나래뜰오토캠프장 인근에는 대천항과 수산시장,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등 갈 곳이 많다.
3 광덕그린농원은 해발 6백미터에 위치한 휴양림으로 울창한 숲 속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2



3

7 화천 딴산유원지야영장

겨울엔 인공빙벽이 여름에는 인공폭포로 변신

시골 강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딴산유원지다. 겨울에는 인공빙벽으로 유명하며, 그 빙벽이 여름에는 인공폭포로 변신한다. 바로 옆 딴산유원지를 따라 걸으며 경치를 감상할 수도 있다. **위치**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1313-1 | **문의** 033-440-2547

8 진안 운일암반일암야영장

하루 중 햇빛 반나절만 비쳐… 여름에만 한시 개장

옥수청산 천지산수가 신묘하게 어우러져 그야말로 자연조화의 극치이며 절경을 보여주는 곳이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길이 없어 오가는 것은 구름밖에 없다 하여 운일암, 하루 중에 햇빛을 반나절밖에 볼 수 없다 하여 반일암이라 불렸다고 한다. 그만큼 이곳 야영장을 오가는 길에서 볼 수 있는 경치가 괜찮다.

야영장은 2개소가 있으며 여름철 한시적으로 개장하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이용하려면 미리 전화문의를 해야 한다. 족구장과 농구장도 설치되어 있다. **위치**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문의** 063-430-2227(진안군청 문화관광과)

9 대천 나래뜰오토캠프장

휴양지서 누리는 나눔… 인근에 대천해수욕장

캠핑도 즐기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캠프장이 있다. 대천애육원에서 운영하는 나래뜰 오토캠프장으로 이곳에서 캠핑을 즐기는 것이 바로 애육원에 후원하게 되는 것이니 일석이조의 캠프장이라 할 수 있다. 캠프장 자체에는 볼거리가 없지만 바로 인근에 대천항과 수산시장,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등 갈 곳이 많다.

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647-2 | **문의** 070-8270-8765

10 화천 광덕그린농원

울창한 숲… 도자기 체험, 서바이벌 게임 시설도

광덕그린농원(광덕리조트)은 해발 6백미터에 위치한 30만여 평의 넓은 휴양림으로 울창한 숲 속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30여 동의 통나무집, 눈썰매장, 도자기 체험장, 서바이벌 게임장, ATV 체험장, 낚시터, 식당 등의 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광덕그린농원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숲길을 따라 산책하는 재미도 괜찮다.

위치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1053 | **문의** 033-441-2617

글·감홍규 (네이버 카페 '캠핑 프렌즈' 운영)

온가족의 끈끈한 유대는 '캠핑의 선물'

숙박비 안 드는 경제적 장점 외에 아이들 놀이 통해 사회성 높아져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캠핑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캠핑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는 현재 60만명에 이르며 3년 이내에 1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캠핑이에요. 여행경비라야 교통비와 음식비, 여기에 캠프장 이용비용 정도이니 저렴해서 부담 없죠. 경제적인 면에선 숙박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무엇보다 캠핑의 장점은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TV 중독, 컴퓨터 중독이었던 아이나 아토피가 있는 아이가 숲에서의 캠핑을 통해 치유된 긍정적 사례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오토캠핑을 해온 아웃도어 전문지 기자 김기환씨는 캠핑 예찬론자다. 대학 시절 산악 동아리에서 알파인캠핑(산악캠핑)을 즐긴 것을 시작으로 오토캠핑 동호회 1호라 할 수 있는 '호상사(캠핑장비 업체) 정기 캠핑' 동호회에 가입해 캠핑을 즐겨왔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 따라 물가에서 캠핑하던 추억을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 캠핑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상 출장이 잦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적은데도 온 가족이 끈끈한 유대가 가능한 것은 캠핑의 도움이 크다"고 덧붙인다.

계절 따라 산으로 바다로 가볍게 떠나

그는 주로 수도권 내 캠프장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다녀온 곳은 경기 북부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내 오토캠프장, 포천군 금동산야캠프장 등이다. "최근 생긴 곳이라 비교적 시설이 깔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캠핑을 하면 으레 텐트를 치고 식사하기 바쁘지만, 김기환씨 가족은 먹는 것보다 즐기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 딸과 1, 2학년 아들 연년생이 있는 그의



하재성 기자

어둠이 내린 캠프장에서 불을 쬐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 캠퍼들.

가족은 사이트 구축 후에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거나 캠프장 주변에서 레저활동을 즐긴다. 그는 "한탄강의 경우에는 선사유적지를 둘러보거나 낚시를 즐길 수 있고, 금동산야는 잣나무숲길 트레킹이 해볼 만하다"고 추천한다.

한국투자증권 홍보실 팀장 서대호씨도 캠핑을 '강추'(강력 추천)하고 나선 자타공인 캠핑 마니아다.

"아이들에게 자연은 최고의 놀이터예요. 캠핑을 하다 보면 주변의 모든 것이 아이들의 놀잇감이 됩니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자신들만의 놀이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캠핑을 많이 하다 보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없을 정도로 사회성 있는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캠핑만큼 좋은 경험은 없습니다."

다음카페 최대 캠핑 동호회 '캠핑하는 사람들'(이하 '캠사')의 기획분과위원을 맡고 있는 그는 골프보다 캠핑이 좋은 이유를 "가족과 할 수 있는 최적의 여가활동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캠사'에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회원만 8만4천여 명에 이른다.



캠핑하는 사람들
다음카페 최대 캠핑 동호회 '캠핑하는 사람들'은 매년 두 차례 전국캠핑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동호회 통해 또 다른 '가족'을 만나기도

"캠핑을 시작한 지는 8년, 동호회 활동을 한 지는 3년 정도"라는 그는 "일로 바쁜 나날을 지내다 보니 문득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기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생각에 둘째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캠핑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

그가 가입한 '캠사'에서는 매년 5월과 10월 두 차례 전국캠핑대회를 여는데 한 번에 약 3백50팀, 1천5백명이 참가하고 있다. 그는 동호회 주최 전국캠핑대회는 물론 동호회 내 각 지역에서 진행하는 매월 넷째 주 정기캠핑에도 꼬박꼬박 참가한다.

"봄에는 전북 덕유대캠프장에서 철쭉을 보고 여름엔 서해안 몽산포캠프장에서 바다를 벗하며 가을엔 속리산 화양구곡캠프장에서 단풍 구경을, 겨울엔 설악에서 눈 구경을 한다"는 서대호씨는 한 달에 2~3차례, 최소 2박은 숲에서 '외박' 생활을 하고 있다.

캠핑 동호회를 하다 보니 가족도 늘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활동하다 보면 모두 가족처럼 돼 가족의 개념이 없어진다"고 말한다. "요즘은 캠프장에서 캠퍼들의 축하를 받으며 돌잔치나 칠순잔치를 하는 가족도 있다"고 전한다.

때문에 캠프장에서 만난 캠퍼들 사이엔 반드시 지켜야 할 불문율이 있단다. 바로 나이나 직업, 이름을 묻지 않는 것이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끼리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데 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캠프장에서 동호인들은 대부분 이름대신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

캠핑 동호회는 친목을 기반으로 한 물물교환의 장(場) 역할도 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대표 카페인 캠핑퍼스트(초보캠핑)는 캠핑을 시작하는 초보 캠퍼에게 캠핑에 대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 캠핑 장비 공동구매, 중고 장비 교환장터 등도 운영하고 있다. 사설캠프장과 협력을 맺어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동호회도 늘고 있다.

캠프장 부족 등 정부·지자체 지원 절실

국내 캠핑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캠핑 마니아 사이에선 '공급 및 서비스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 캠핑 동호인은 "캠핑 문화가 건전한 가족문화의 하나로 자리잡아가는 것은 반갑지만 이에 따라 캠프장은 점점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공립 캠프장의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비용 부담이 큰 사설캠프장으로 향하는 캠퍼들도 많다"고 말했다. 캠핑 동호인 커뮤니티들은 "건전한 캠프문화 조성을 위해 시설확충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전국 단위 캠프대회 개최 시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 글·박근희 기자

캠핑하는 사람들 cafe.daum.net/campingpeople
캠핑퍼스트(초보캠핑) cafe.naver.com/campingfirst
초보캠핑 장터 cafe.naver.com/chocammall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이번엔 어디서 야외취침할까?

스마트폰에 여행안내·지도는 기본… 날씨·응급처치까지 OK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캠핑장비도 가벼워지고 있다. 일단 불필요해진 것은 여행안내 책자와 지도다. 여행안내 책자와 지도는 캠핑장비를 꾸릴 때 따로 챙겨야만 했던 기본 자료들이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그 기능을 대신한다. 여기에 더욱 진화된 캠핑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들은 짐을 가볍게 해 줌은 물론 캠핑의 재미를 더해 주고 있다. 캠핑 마니아 추천 앱을 살펴봤다.

코베아 마이캠핑 캠핑용품 전문 브랜드 주식회사 비젼코베아에서 제공하는 앱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주요 캠핑장 정보와 함께 주변 맛집, 캠핑요리 레시피 정보를 제공한다. 레시피 목록엔 '캠핑 도구별 레시피'가 따로 있다.

캠핑인 캠핑장 후기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남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자가 각 캠핑장에 별점을 줄 수도 있다. 실시간 정보 수정과 업데이트 기능으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캠핑요리 레시피 제공 앱도 등장

코리아트립(Korea Trip) 안드로이드용, 오토캠핑 앱으로 캠핑장 검색과 해당 캠핑장의 전기 사용 유무, 샤워시설 정보까지 검색할 수 있다. "캠핑 고수가 개발자가 아니냐"는 평을 들을 정도로 만족도 높은 앱으로 꼽힌다.

콜맨 랜턴(Coleman Lantern) 캠핑용품 전문 브랜드 콜맨이 개발한 랜턴 앱으로 콜맨이 판매하는 10여 종의 랜턴 이미지를 활용해 만든 것이 재미있다. 캠핑 시 어두운 곳을 일시적으로 밝힐 때 유용하다.

모기 퇴치(Anti mosquito) 모기들이 싫어하는 고주파로 모기를 퇴치해 주는 앱. '어린이 안전모드'와 타이머 설정이 가능한 것도 있다. 단, '효과보다는 재미용'이라는 평이 많다.

응급의료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앱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주변 응급의료기관 확인뿐 아니라 병상확인, 진료시간 검색 및 심야 약국 찾기가 가능하다.

원기 날씨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 시간별 날씨 정보와 "강수량 및 비 올 확률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텐트 철수 시기도 가늠하기에 유용하다"는 평이다.









Jeep 캠핑 차량 브랜드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최근 출시한 캠핑 앱. 위치정보를 승인하면 가까운 캠핑장 순으로 목록이 형성된다. 캠핑 레시피와 오프로드 특강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Star Walk 별자리 관측 앱은 캠핑 시 재미를 더한다. 아이폰용 Star Walk는 GPS 연동을 통해 자기 위치에서 볼 수 있는 별을 소개해 준다. 일출·일몰 시각과 별이 보이는 시각을 표시해 준다. "정보도 비교적 정확하다"는 평이다.

TJ 노래방 캠핑의 낭만을 더해 주던 기타 반주 대신 노래방 반주를 제공하는 앱도 브랜드별로 있다. 'TJ 노래방 질러쏭 Plus'는 무료곡과 유료곡이 나뉘어 있다. 유아용 '율동 노래방' 앱도 있다. G

글·박근희 기자

오토캠핑 맛보기… 춘천 중도로 오세요

한국관광공사, 1백 가족 초청 6월 25~26일 묘목심기·숲체험 이벤트

'녹색오토캠핑릴레이'가 한국관광공사와 SK에너지 공동주관으로 5월부터 7월까지 덕유산국립공원, 춘천 중도 등에서 매월 1회씩 개최된다. 또 체험, 연휴 등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한 '우수테마여행상품'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관광활성화'라는 큰 테마를 중심으로 국내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가족체험여행, 시티투어, 추천 가볼 만한 곳 등 다양한 대국민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녹색오토캠핑릴레이' 1차 행사는 5월 28~29일 덕유산 야영장에서 진행됐고, 2차 행사는 6월 25~26일 춘천 중도에서 열린다. 매월 1백 가족(4인 기준)을 초대해 1박2일 오토캠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묘목심기, 숲체험, 문패 만들기, 녹색캠퍼의 밤 등의 체험 이벤트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여행 경비 중 식비, 교통비는 참가자가 부담하고, 캠프장 이용료, 체험비 등은 관광공사에서 지원한다.



'녹색오토캠핑릴레이'에서는 묘목심기, 숲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홍보실 김지선 대리는 "구제역으로 침체되었던 관광산업과 국민들의 국내관광 심리 회복 및 국내관광 수요 촉진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진흥팀 정아름씨는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내관광 수요를 촉진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여행하기 좋은 시기인 5월부터 7월까지 대국민 참여형 이벤트 집중 실시로 국내관광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롭게 떠나는 1박2일 가족체험여행도

가족체험여행은 1박2일 동안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가지고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는 행사로 5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거쳐 1백50가족(총 6백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1차 행사는 강원도 평창에서 5월 21~22일 진행됐고 2차 행사는 6월 18~19일 전남 담양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달 선정하는 '추천! 이달의 가볼 만한 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벌어진다. 새로운 여행지를 찾는 개별 가족여행객에게 적극 추천할 만하다.

지역 관광지를 두루두루 볼 수 있는 '전국시티투어 참가 이벤트'도 개최된다. 전국 46개 지자체가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중인데, 버스 탑승 후 사진을 찍고 등록하면 매월 추첨을 통해 5만원권 코리아패스 선불카드를 제공한다.

관광공사는 이와 같이 풍성한 관광 이벤트 개최가 극도로 위축된 국내관광 산업의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

글·서일호 기자

문의·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트위터 @Kor_Visitkorea
구석구석카페 http://cafe.naver.com/9suk9suk

'World Friends Korea 한마당' 외교사절 참석 탤런트 박상원

"청년들의 세계 봉사는 국력의 상징이죠"

요즘 이 사람, 탤런트지만 TV 밖에서 더 바쁘다. 지난 5월 9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월드비전 '사랑의 동전밭'에선 '은행장'으로 인사하더니, 5월 23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단과 함께하는 World Friends Korea 한마당'(이하 WFK 한마당)에 외교사절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더 바쁜 사람, 바로 박상원씨다.



'WFK 한마당'에서 해외 긴급구호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박상원씨. 그는 "세계 구호 현장에서 WFK 마크를 단 봉사단원들을 만나면 감동이 밀려온다"고 말했다.

"김혜자 선생님이 올해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활동하신 지 20년째예요. 제가 1년 늦게 시작했으니 어느덧 19년째네요."

월드비전 친선대사 자격으로 작년 WFK 발대식에 이어 올해 행사에도 참석한 박상원씨는 친선대사 활동 20년을 앞두고 감회가 새로운 듯했다. 그간 긴급구호가 필요한 곳이면 어김없이 달려가 팔을 걷어올렸던 그였다.

그는 1992년 월드비전 친선대사가 됐다. 본격적으로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한 건 1996년 아프리카 르완다 내전 때부터였다.

96년 르완다 내전서 구호활동 사명감 느껴

"처음 아프리카 르완다로 구호활동을 떠날 땐 촬영팀과 함께 가는 것이라 솔직히 '아프리카 여행 겸 다녀오자'는 생각도 있었죠. 하지만 막상 르완다에 도착해 보니 상황은 심각했어요. 키갈리 호수가 핏빛으로 변할 정도로 잔인한 내전이었죠. 그제야 실감났죠.

당시 긴급구호 후 숙소로 돌아오던 중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장세력과 마주친 일은 잊을 수가 없어요. '꼼짝 없이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타고 있던 지프차량에 새겨져 있던 '월드비전' 마크를 보고 저희 차량을 그냥 통과시켜 줬어요.

비록 아프리카의 한 종족이지만 '월드비전'이 자신들을 구호하러 온 단체라는 정도는 알았던 것이죠. 이를 계기로 구호활동에 더욱 사명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1999년 콜롬비아 아르메니아 대지진 구호현장,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구호현장, 2006년 동티모르 내전 구호현장 등에도 그가 있었다. 이외에 아프리카, 케냐, 남아프리카, 모잠비크, 잠바브웨 등지를 돌며 월드비전코리아의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위험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하지만 구호활동을 펼치며 현장상황을 알아갈수록 봉사는 멈출 수 없었다.

"지금도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나라들이, 아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가진 촛불을 나눠준다고 해서 내 촛불이 꺼지는 것은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WFK 한마당'에는 월드비전코리아, 굿네이버스를 포함한 민·관 해외봉사단원 7백여명이 참석했다.

아니잖아요. 내 촛불로 1백명, 1천명의 촛불을 밝힐 수 있다면 나눠야죠."

오랫동안 해외 구호활동과 봉사활동을 펼쳐 왔던 그이기에 느낀 점도 많을 것 같았다.

"처음 르완다 내전 구호활동 현장에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온 젊은 청년들이 구호활동을 펼치는 것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한국 대표 친선대사로 온 저보다 젊은 청년들이 더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에 자극을 받았죠. '우리나라 청년들도 그 속에 함께 섞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세계 어느 구호현장을 가도 'WFK'라는 이름과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은 봉사단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일이죠."

우리나라가 월드비전 구호활동선 G4

그는 요즘 구호활동이나 해외봉사 현장을 가면 "국격이 높아진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아시다시피 '월드비전'은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 전쟁고아를 구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NGO 단체입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월드비전 구호활동에 있어 G4에 해당할 만큼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가 놀랄 만한 일이고 이미 놀라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 가 한국 봉사단원들이 현지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그는 "춤뿐 아니라 개도국에 태권도 등 한류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재능 봉사가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청년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봉사를 한다는 것은 곧 국력의 상징"이라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WFK의 이름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 많은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소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잊지 않았다.

한편 외교통상부, 국가브랜드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주관으로 5월 23일 열린 'WFK 한마당'은 WFK의 다양한 활동경험과 그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외교사절 등 국내외 인사 외에 굿네이버스와 월드비전코리아 등 민·관 해외봉사단원 7백여 명이 참석했다.

2011년부터는 WFK 봉사단의 참여 범위가 확대돼 정부 파견 봉사단뿐 아니라 민간 기업 및 NGO 단체의 해외봉사단원들도 WFK 브랜드를 사용하게 됐다. G

글·박근희 기자

WFK는?

통합된 대한민국 해외봉사단의 단일 브랜드

WFK(World Friends Korea)는 '세상 구석구석의 어려운 이웃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친구'라는 의미로 2009년 행정안전부(대한민국 IT봉사단), 외교통상부(KOICA 해외봉사단), 교육과학기술부(한국대학생 해외봉사단) 등에서 개별적으로 파견, 운영해 오던 해외봉사단을 통합한 대한민국 해외봉사단의 단일 브랜드다.

한동대 적정기술동아리 'CRAIST90%'팀

맞춤형 '따뜻한 기술'로 개도국 과학봉사

해외봉사단의 활약은 국가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한 축이 돼 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부처별로 추진해 오던 해외봉사단 사업을 'WFK(World Friends Korea)'로 명칭을 통합·진행해 오고 있다. 〈위클리공감〉에서는 세계로 나가 국격을 높이고 있는 해외봉사단의 활약을 소개한다. 이번 호의 소개는 과학기술 봉사를 펼치는 한동대 적정기술동아리 'CRAIST90%'팀이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라는 말이 있다. 각 지역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현지의 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 고액투자가 필요치 않은 기술을 말한다. 현지인들의 환경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기술로 개도국에 주로 적용된다.

한동대 적정기술동아리 'CRAIST90%'(크라이스트 나인티퍼센트)를 이끌고 있는 전산전자공학부 한윤식 교수는 그것을 "따뜻한 기술, 인간의 얼굴을 가진 기술"이라고 표현한다.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비인격적인 기술이 아닌 현지 사람들의 문화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격적인 기술이라는 의미에서다.

CRAIST90%팀(이하 봉사단)은 이 '따뜻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태국의 매해 지방을 다녀왔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도국과학기술 지원사업의 기관협력 사업 등을 통해 '과학기술 봉사'를 펼치고 있다.

고산지역인 매해 지방은 태국의 주류를 이루는 타이 사람이 아닌 카렌이나 몽과 같은 소수민족 6천여 명이 모여 사는 곳이다. 카렌이나 몽족은 미얀마와 라오스의 내전을 피해 고산지대로 옮겨와 살게 된 경우로 이들은 단열 및 보온이 전혀 안되는 전통가옥에서 생활한다. 때문에 섭씨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밤에는 주민들이 항상 추위에 떨며 잠들어야 했다.



한동대

태국 매해 지역에서 현지인들에게 흙벽돌 제작법을 전수하고 있는 한동대 봉사단 'CRAIST90%'. 봉사단은 지속적으로 방문해 적정기술을 전수해 오고 있다.

봉사단은 현지 조사를 벌인 후 자연순환식 온수난방 시스템을 직접 개발해 설치해 주기로 했다. 특히 집 안의 붉은 흙바닥을 소중히 여기는 몽족의 전통과 집을 열대지방의 지면에서 띄워 올려 집을 짓는 방식을 고수하는 카렌족의 전통을 존중해 가능한 한 전통가옥의 구조를 변형하지 않는 화덕형 온수난방 시스템을 개발했다.

설치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난 1월에 진행했다. 나무와 일반 호스만 있으면 바닥을 덥히고 온수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이 장치는 겨울의 추위에 전혀 대책이 없던 현지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현지인들에게 기술 전수까지 마쳤다. 유지에 필수적인 제어와 보수에 대한 교육도 두 차례 실시했다.


한동대

한동대 봉사단의 '적정기술 봉사'가 알려지면서 미국 테일러대도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됐다.

"이젠 따뜻한 물에 샤워할 수 있어요"

온수난방 시스템 설치 하나로 현지인들에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 한겨울에도 찬물로 어린아이를 씻겨야만 했던 여인들은 따뜻한 물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고 실내에 있던 화덕이 실외로 옮겨지면서 삶의 질도 높아졌다. 화덕의 매캐한 연기 때문에 늘 감기와 기관지염으로 고생해야 했던 주민들은 더이상 연기 때문에 눈을 찌푸리거나 기침을 하지 않아도 됐다.

봉사단은 향후 5년 이내에 이 지방의 벌목이 완전 금지되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화목을 대신해 태양열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저가형 태양열온수난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겨울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의 신근식 겸임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흙건축팀을 조직해 매해 지역의 주거문화에 적절한 저가형 친환경 고급주택을 시범적으로 현지인들과 함께 건설했다.

봉사단은 올 가을 흙벽돌 프레스와 함께 흙건축 교육팀을 보내 기술 전수를 하고 흙벽돌을 제작하게 해 겨울에 매해 마을의 요충지에 노인정을 건축하게 할 계획이다. 물론 태양열 온수난방 시스템도 설치한다.

기술 보급뿐 아니라 매해 지역의 '빈곤 문제'를 자생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퇴치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매해는 매년 야산에서 약 2천톤의 매실이 생산되지만, 대부분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태국인은 매실을 먹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생각해 매실 음료 산업을 고안해 냈다. 매해와 불과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치앙마이를 1차적인 목표 시장으로 정하고 시장성 조사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치앙마이의 대표적 카페 거리에서 매실 음료 시음회도 펼쳤다. 시장조사 등 음료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 결과 매실 음료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추후 지역 주민의 비즈니스 관련 교육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한 교수의 설명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저개발국 특정 지역의 특산물을 현지인들이 생산해 공동체적으로 농축산물을 가공하여 제품을 만든 뒤 시장에 유통까지 하게 하는 자립형 공동체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육성하는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빈곤 퇴치를 위한 시장조사도 벌여

수년간 계속된 봉사단의 지속적인 방문연구, 교육 및 보급 활동으로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바뀌었다. 온수난방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고산지역 깊은 마을에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흙건축 전문팀을 조직하여 사회적기업을 구상하는 마을청년 그룹도 생겼다.

한동대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국내 공학계열의 전공을 활용하는 봉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적정기술 연구에 동참하고 싶다는 해외 대학들의 제안도 속속 들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테일러대 등 몇 개 대학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됐다.

한 교수는 "1년에 두 번씩 현지를 방문하는데 그때마다 학생들이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엔 자신들의 공학적 사고력과 지식 그리고 인문사회적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고 깨닫는 것을 보면 교육적인 효과가 아주 큰 것 같다"며 "이런 사업이 더 많이 진행돼 과학기술로 사회에 기여하는 공학자가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

글·박근희 기자

흥행몰이 한창인 영화 〈써니〉 강형철 감독

"우리 엄마들의 '소녀시대'를 담았어요"

영화 〈써니〉는 1980년대 고교시절 '칠공주'였던 아줌마가 친구들을 찾아 나서면서 과거를 추억으로 간직하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 영화를 만든 강형철 감독은 〈과속스캔들〉로 8백30만 관객의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조선DB

강형철 감독은 "우리 엄마도 첫사랑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에서 영화 〈써니〉가 출발했다"고 말했다.

강형철 감독은 담담했다. 데뷔작 〈과속스캔들〉에 이어 〈써니〉로 연타석 홈런을 쳤는데도 달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화를 걸어 흥행 소감을 묻자 "제가 지금 오랜만에 머리를 하고 있어서요. 한 시간 뒤에 전화 드릴게요"라는 공손한 답이 돌아왔다. 꼭 한 시간 만에 전화가 걸려 왔다.

강 감독은 "주변에서 축하한다고들 하는데 너무 들뜨지도 않고 담담하다"고 말했다. 축하턱을 내느라 바쁠 법도 하지만 그는 너무 과로해서 조용히 집에서 쉬고 있었다며 웃었다.

사실 강형철 감독은 현재 〈써니〉 디렉터스 컷(감독버전)을 개봉시키기 위해 작업에 한창이다.

〈써니〉 감독 버전은 현재 극장 개봉 버전보다 좀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의붓엄마와 갈등을 겪는 수지가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면도칼을 씹어대는 무서운 언니들이라든지. 하지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으면서 현재 15세 이상 관람가로 조정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편집할 수밖에 없었다.

〈과속스캔들〉에 이어 연타석 홈런

강 감독은 "손익분기점인 3백만명이 넘으면 감독 버전을 개봉하자고 약속을 했었다.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분명하게 선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써니〉 흥행을 "과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 담백한 웃음 때문인 것 같다"며 쑥스러워했다.

강형철 감독은 2008년 한국영화계에 등장한 '앙팡 테리블' 중 한 명이다. 그를 비롯해 〈추격자〉의 나홍진, 〈미쓰 홍당무〉의 이경미 등 비슷한 또래인 세 감독은 전혀 다른 색깔의 영화로 한국영화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 강 감독은 〈써니〉를 선보였다. 〈써니〉는 고교시절 칠공주였던 아줌마가 친구들을 찾아 나서면서 과거를 추억으로 간직하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 강 감독은 1980년대를 즐거운 한때로 추억하며 영화적 재능을 입증했다.

〈써니〉는 할리우드 영화 공습 속에서도 2백80만 관객(지난 5월

25일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을 동원하며 쾌속질주 중이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부모와 자녀들이 손을 잡고 즐겁게 관람하는 문화가 생기고 있다.

강 감독은 남자 감독이 여자, 더군다나 아줌마 이야기를 착안한 데 대해 "우리 엄마도 첫사랑이 있었을 텐데 라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이모가 굉장히 즐거운 소녀시절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모 이름 남희를 따서 시나리오를 쓰다가 오타가 나서 나미로 썼다고 한다. 나미라는 이름을 쓰니 그의 노래를 따올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풀어 나갔다.

제목도 '칠공주파' 이름으로 하고 싶었다. 보니엠의 노래 〈써니〉가 떠오르면서, 의미도 좋고 아이들이 춤추는 모습도 연상돼 지금의 제목으로 정했다.


영화 〈써니〉는 할리우드 영화와 맞서 3백만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며 쾌속질주 중이다.

〈써니〉는 정치적으로 우울했던 1980년대를 고통이나 회한으로 그린 여느 영화들과 달리 즐거웠던 한때로 표현했다. 전경과 데모대가 충돌하는 데 칠공주파들이 한데 어울려 싸우고 그 배경에 조이의 노래 〈터치 바이 터치〉가 깔린다.

우울한 80년대를 즐거운 추억의 한때로

강 감독은 "1980년대가 정치적으로 우울했던 시대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는 소녀들의 시대를 그리고 싶었다. 나뭇잎이 굴러도 웃는 소녀들의 시대였으니까"라고 말했다.

〈써니〉는 패거리들이 우르르 대결하는 장면이라든지, 〈라붐〉 패러디라든지, 의도적으로 촌스러운 표현을 써서 오히려 세련되게 느껴진다. 전작인 〈과속스캔들〉과도 많이 달라졌다. 강 감독은 "전형적이고 유치한 콘티인 게 맞다"며 "진지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웃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진지한 데 웃긴 모습, 우리들 청춘의 단면이기도 하다.

〈과속스캔들〉이 강 감독의 입문기라면 〈써니〉는 강 감독의 자신감이 드러난 작품이다. 막대한 음악저작권을 사전에 기획하고 쓸 수 있었던 것은 〈과속스캔들〉의 성공 덕이 크다. 그는 2년차 징크스를 두려하기보단 "전편의 성공으로 원하는 것을 더 쉽게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강 감독은 〈써니〉에 다양한 캐릭터와 이야기를 한 컷에 담는 원신 원컷을 적절히 사용해 재능을 입증했다. 남용하기보다는 여고 교실 소개 첫 장면이나 과거 비디오 장면 등을 영화에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강 감독은 후반부 갈등을 주는 인물의 설명이 부족한 데 대해 "영화 〈칼리토〉에서 알 파치노를 죽이는 게 별 비중 없는 인물이었다"며 "그게 인생의 아이러니고 그런 것을 넣고 싶었는데 '아직 공부할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유혹도 많았다. 데뷔작 제작사를 떠나 더 좋은 조건으로 영화를 만들 수도 있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관계가 '내가 이렇게밖에 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해 줬는데 너무 고마워'라고 말하는 관계인 것 같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밖에 못해 줘'라고 하는 건 나와 안 맞는다. 토일렛픽쳐스에서 〈과속스캔들〉로 데뷔시켜 줬고, 정말 잘해 줬다. 그래서 이번 작품을 같이 한 것 뿐이다."

마지막 장면은 동화적인 화법으로 'the end'

그의 영화도 착하다. 마지막 장면이 너무 친절하지 않냐는 지적도 있지만, 강 감독은 "'그 뒤로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라는 동화적인 화법으로 끝을 내고 싶었다. 돈으로 다 해결한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돈이 있다면 저렇게 쓰면 멋있지 않나 생각한다. 또 돈보다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두 편 연속 흥행에 성공했기에 강 감독의 주가는 더욱 올라갔다. 각 영화 제작사마다 그를 찾는다. 강형철 감독의 다음 이야기가 어떨지도 궁금해진다.

강 감독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유머가 있는 것을 할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이 보고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종교영화를 만든다면 "끝날 때까지 종교 영화인 줄 모르다가 극장을 나서면서 성경의 어떤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G

글 · 전형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기자)

농촌의 '구전자원' 관련 책 펴낸 김미희 농촌진흥청 연구관

"한국판 로렐라이 언덕 만들고 싶어요"

로렐라이 언덕은 유럽의 명소다. 하지만 이렇다 할 볼거리는 없다. 시와 노래로 유명하지만 실제 모습은 강가의 높은 벼랑일 뿐이다. 이야기와 노래가 로렐라이를 만든 셈이다. 한국에도 로렐라이가 나올 수 있을까. 김미희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 연구관은 이야기의 힘을 믿고 있었다.



김승완 기자

김미희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농촌의 구전자원을 활용해 체험 프로그램 등 문화콘텐츠를 만들면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에 수많은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떡메치기, 투호 등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그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김미희 농촌진흥청 연구관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농촌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 이를 지역 활성화에 활용해야 한다는 대목에선 열정이 느껴졌다. 독일의 로렐라이 언덕이 명소가 된 것은 언덕 자체의 아름다움보다 이곳에서 유래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시와 노래 덕이라는 얘기다. 김 연구관은 '한국의 로렐라이'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관광 전문가들은 관광산업의 성패는 '재방문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체험마을의 재방문율은 얼마나 될까요. 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활용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으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흔하디흔한 돌뿌리라도 이야기가 붙으면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매개로 여행객과 지역민이 교류하고 공감한다면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스토리텔링 화제 만들어 관광객 유치

김 연구관은 최근 〈구전자원은 어떻게 스토리가 되는가?〉라는 책을 냈다. 농촌의 구전자원(口傳資源), 문헌이 아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가령 이런 식이다. 충청남도 서천군에 동죽마을이 있다. 마을 동쪽에 대나무가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지만 최근엔 '황새마을'로 더 유명하다. 과거 황새가 많이 찾아들었다는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새 이름이다. 지금에야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 마을에 황새와 얽힌 옛이야기가 적잖다는 사실에서도 황새가 이 마을의 '상징'인 시절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명도 황새에서 유래한 것들이 꽤 있다. 당장 마을 초입의 논부터 '황새들'로 불린다.

황새의 방문이 끊겼지만 황새는 이 마을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

황새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을 주민 대부분이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마을 곳곳에는 황새 조형물이 들어섰다. 입소문이 나면서 마을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늘었다.

"황새에 얽힌 이야기와 황새를 기다리는 마을 주민들의 마음, 전해 내려오는 풍습과 노래, 이 마을 특유의 농업 기술이 어우러진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이 마을이 특별해지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마을에 활기가 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김 연구관이 내놓은 책은 황새마을을 비롯해 충남 옥천 장수마을, 경북 경주 장사마을 등 3개 자연마을의 이야기와 노래를 발굴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직접 현장을 찾아 마을 어른들과 어울리며 함께 기억을 더듬으며 길어 올린 이야기와 노래로 기둥을 세우고 연관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서까래를 올렸다.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구전자원 연구 시작

"옥천 장수마을에 옛 노래 잘하시는 어른이 있다고 해서 녹음기를 둘러메고 갔어요. 그런데 막상 나오는 노래가 '목포의 눈물'이었어요. 이 어른을 몇 년 전에 인터뷰한 분이 있다고 해서 당시 녹음한 노래를 얻어서 다시 찾아갔죠. 녹음된 노래를 들려주니 그때서야 기억을 떠올리시더라고요.

마을의 옛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노인들이 줄어들고 세월에 따라 기억력도 쇠퇴하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농촌의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도 있잖아요."

농촌진흥청은 1997년부터 농촌의 구전자원 연구를 시작했다.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 무렵 우리나라가 가입한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조치였다. 이 협약의 8조 j항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전통문화를 발굴,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다. 지역 환경과 어울려 발전한 지역의 농업 기술과 문화가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어렵사리 발굴한 농촌의 구전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농촌체험마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재로만 사용하기엔 아까운 것이 사실이다. 김 연구관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영화나 만화의 소재로도 엮을 수 있을 것이고 음반을 낼 수도 있다. 독립영화로서 공전의 흥행을 기록한 〈워낭소리〉가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농사 방법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음식도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같으면서도 다른 게 있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독특하고 신선한 문화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조선DB

충남 서천군의 황새마을은 황새와 얽힌 이야기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마을 초입의 '황새들'과 황새 조형물.

실제로 김 연구관은 올해 안에 음반을 낼 계획이다. 이번에 발굴한 민요들을 녹음하는 것이다.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도 노래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하고 스마트폰의 앱으로도 개발할 생각이다. 책에는 약 30편의 노래를 채록한 악보가 실려 있다. 그 중 한 토막.

'올케와 빨래를 갔다 물에 빠졌네. 동생을 젖혀두고 마누라부터 건지더라. 야속하고도 무정하네. 우리 오빠가 야속하네. 나도 죽어 저승 가서 남편부터 챙겨야지. 오빠는 죽어서 개구리가 되고 나는 죽어 서어뱀이 되어 이삼사월 긴긴 해에 풀밭에서 만납시다.'

미국 기업, 우리 민간요법서 착안해 신약 개발도

지식재산권 측면에서도 옛이야기를 발굴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 고유의 지식재산이 도둑질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다. 우리 민간요법에 '닭발을 고아 먹으면 관절에 좋다'는 게 있다. 미국의 한 회사가 여기에서 착안해 약을 개발해 특허를 냈다. 이 약을 먹으려면 당연히 로열티를 내야 한다. 김 연구관은 이를 정당하지 않다고 단언한다.

"국제적으로도 전통문화의 해적 행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통문화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특허가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의 옛 문화와 이야기를 우리 것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해적행위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률 연구를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G

글·변형주 기자

문화와 생태… 지역 보물을 '세상 밖으로'

'지방행정의 달인 2010'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두 명의 달인이 선정됐다.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 등재를 진두지휘한 강릉시청 최선복씨와 순천만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만드는 데 기여한 최덕림씨가 그 주인공이다.

문화유산 국제화의 달인 | 강릉시청 최선복씨

강릉단오제 '세계 무형유산' 등재에 앞장

최선복(47)씨는 '단오 박사'로 통한다. 그는 2005년 강릉시 완산면 부면장 재임 시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으로 등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1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져 오던 단오제를 세계적인 무형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게 한 것은 물론 세계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만든 것이다.


조선DB

'강릉 단오제 박사' 최선복씨는 유네스코 등재에 관해 백지상태였지만 제안부터 등재까지 진두지휘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강릉 단오제를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여기(달인 선정)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지방 행정의 달인에 선정된 소감을 말했다.

그동안 종묘제례악이나 판소리 등 우리 무형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는 문화재청 등이 주축이 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반면 강릉 단오제는 기초 자치단체가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해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지방 공무원으로서 지방의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업무는 문화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외국어, 국제 업무 능력 등이 고루 필요한 전문 분야였다.

그는 우선 부지런히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찾아다녔다. 무형유산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며 공부도 했다. 강릉 단오제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는 그 제안부터 최씨의 몫이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유네스코 등재는 무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백지상태였던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등재의 꿈'은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차츰 밑그림이 그려졌다.

강릉 단오제를 있는 그대로 유네스코에 알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어렵다는 생각에 최씨는 세계 굴지의 무형문화재를 간직한 국가 간 도시들의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2004년 강릉시가 제안해 200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첫 창립총회를 가진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ICCN)이 그것이다.

이후 강릉시는 사무국 지위를 유지하며 세계 속의 무형문화유산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강릉시는 이를 통해 단오제를 유네스코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2005년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에 등재시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강릉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해 영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나섰다. 영어권 국가에 보급할 교육교재를 호주 그리피스 대학에 맡겼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였다. 이를 통해 지

역문화유산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에는 강릉에서 제1회 세계무형유산축제가 열린다. 강릉시는 세계 어린이 전통놀이 테마파크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4월 7일 강릉시를 떠나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기획관리 팀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앞으로도 강릉 단오제를 잘 보존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소중한 무형유산이 세계적인 유산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생태관광 활성화의 달인 | 순천시청 최덕림씨

순천만 생태계 복원으로 연 3백만 관광객 유치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를 위해 전봇대 2백82개를 뽑아낸 사람, 스스로를 '순천만의 머슴'이라고 부르는 사람. 순천시 경제환경국장인 최덕림(53)씨의 얘기다.

그는 한때 개발과 보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순천만을 연간 3백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생태 관광 1번지'로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순천만은 광활한 갈대군락을 비롯해 흑두루미 등 철새, 짱뚱어, 게, 갯지렁이 등이 서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연안습지다. 동시에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2003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2006년 람사르 습지에 등록, 2008년에는 갯벌로서는 최초로 국가명승으로 지정됐다. 이 모든 것은 최씨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화 관광 관련 업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잘해도 칭찬 듣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순천만 살리기는 누군가는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최씨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시작한 일'이 지금의 순천만을 만든 것이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했다"는 그는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관계자들을 초청해 순천만의 상황을 내외에 알렸다.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보전지역과 완충지역을 설정하는 기본 계획을 완성하기도 했다.

순천만 일원 7백70만제곱미터를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협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음식단지를 이전했다. 철새들이 쉴 수 있도록 1백만제곱미터의 내륙습지도 조성했다. 순천만 곳곳을 어지럽혔던 2백80여 개의 전봇대도 뽑았다.

이렇게 복원된 곳에서 아름다운 경관농업을 조성해 '흑두루미쌀'이라는 브랜드로 친환경쌀을 생산하고 있다. 순천만에 대한 지역



조선DB

순천만은 최덕림(가운데)씨의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생태관광 일번지가 됐다. 최씨는 이제 순천시 전체를 생태도시로 만드는 꿈을 꾸고 있다.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겨울철 농한기 경관농업, 철새 먹이주기, 무논습지 관리 등을 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맡겼다.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들을 순천만 관리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순천만 자연생태위원으로 위촉했다. 지역 주민들이 순천만 관련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생태축제 개최 등 관광 자원 개발에도 적극 앞장섰다.

이제 그의 꿈은 순천시 전체를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그 꿈은 이미 실천되고 있다.

그는 "순천만 보전을 위해 현재 습지센터를 5킬로미터 후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습지센터 건립을 위해 예산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습지센터에서 순천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소형 경전철 도입도 추진 중이다.

그의 최종 목표는 "순천만 보전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G

글·박근희 기자

합작회사 통역사로… 우즈베키스탄의 김지훈씨

“도전과 성취… 개도국은 꿈꾸는 자의 땅”

요즘 G20세대의 글로벌 무대 진출은 선진국에만 머물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의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기회를 찾아 떠난 친구들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한국·우즈베키스탄 합작회사에서 일하는 김지훈씨. 이름 때문에 남자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분명 여자인 그는 통역사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며 더 큰 내일을 꿈꾸고 있다.

“크지 않은 회사지만 이곳 사무실에서도 자주 글로벌 세계와 접하곤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수출상대인 중국, 일본 등과 연락할 일이 있거든요.”

한국·우즈베키스탄 합작회사인 ‘네오플란트(Neoplant)’의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김지훈(29)씨. 서울 출신인 그는 2010년 5월부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일하고 있다. 네오플란트는 2007년 한국 기업과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합작으로 세워진 중소기업. 우즈베키스탄 광산에서 규석을 채굴하고, 이를 반도체와 태양전지판을 만드는 중간재인 메탈 실리콘으로 가공해 수출하는 회사다.



개발도상국에서 글로벌 세계로의 비상을 꿈꾸는 김지훈씨는
현재 한국·우즈베키스탄 합작회사 ‘네오플란트(Neoplant)’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2009년 중앙대 통·번역 대학원 한노과 졸업
2005년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어과 졸업

지훈씨는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어과(2005년)와 중앙대 통·번역대학원 한노과(2009년)를 졸업했다. 남자 같은 이름 때문인지 항상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는 도전과 성취로 가득 찬 그곳 생활이 매일 새롭고 즐겁다고 했다.

“요즘은 개발도상국이 기회가 더 많아요. 이곳에서는 통역사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아요.”

네오플란트는 어떤 회사인가요.

“한국 기업 최초로 우즈베키스탄 광산 채굴권을 따낸 회사예요. 현재는 중국이 메탈 실리콘을 가공해 한국에 공급하고 있고, 우리 회사도 아직은 광산 개발 단계에 있지만 향후 광산사업을 확대하고,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가공한 메탈 실리콘을 한국 이외에 일본 및 유럽 국가들로도 수출할 계획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우리측과 우즈베키스탄 정부측이 빈번히 갖는 회의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 앞에서 발표나 브리핑을 하기도 하죠. 또 우즈베키스탄 직원들과 한국 직원들이 회의할 때 통역을 하거나 계약서, 기타 문서 번역을 하기도 해요.”

통역사가 된 계기는 무엇인지.

“외국어 공부를 좋아했어요. 본격적으로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2002년 벨라루스 민스크의 외국어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였어요. 러시아어를 잘 몰라 빵이라도 사 먹으려면 절박하게 공부를 해야 했어요. 초기 6개월 동안에는 하루 16시간씩 러시아어를 공부했죠. 한국으로 돌아와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에 통·번역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어요.”

통역사가 되기까지 힘들지 않았나요.

"대학원 재학 시절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되는 실습과 과제 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동기들도 하나둘씩 생겨났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생활에 적응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지금 좋은 약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억에 남는 통역 경험을 꼽는다면.

"2009년 있었던 한 키르기스스탄 남성의 성폭행 사건 재판 통역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사건은 공교롭게도 외국인 최초 국민참여재판이었어요. 결국 무죄선고를 받았는데 무고한 외국인을 도왔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어요. 이 밖에 아지모프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 통역(2009년 7월), 이브라기모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통역(2009년 12월), 구본준 LG상사 부회장의 러시아 사하공화국 대통령 사절단 만찬 통역(2007년 10월), 이인용 삼성전자 부사장의 타라코프 카자흐스탄 〈프라브다〉 신문사 사장 통역(2009년 3월) 등의 경험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산업지대인 나보이에 회의 참석차 들렀다 만난 인근 마을 아이들과 김지훈씨(맨 오른쪽 끝). 아이들 눈에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다.

해외진출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글로벌 마인드'가 필요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마음가짐은 개도국일수록 중요해요. 기업인들 중에 개도국으로 출장을 가거나 파견되는 경우 교만 또는 자만심을 가지고 개도국 파트너를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한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동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대우해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업무에 있어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도 있고요. 또 외국어 능력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이라면 당연히 중요하죠. 여기에 더해 문화적·상황적 이해와 판단 역시 중요합니다."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에 경험담을 들려준다면.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소기업은, 충분한 자금과 인력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대기업과 달리 예기치 못한 자금 소실로 회사가 타격을 입는 일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특히 진출 대상국가의 법과 제도에 대한 조사가 중요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구 소련 국가는 법과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요. 우리 회사의 경우도 채굴권 획득에 2년이 걸렸는데, 법과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겪은 시행착오 때문이었어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같은 신뢰할 만한 기관의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고, 현지에 설립된 컨설팅 회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우리 회사는 현지 컨설팅 회사를 고용한 덕분에 큰 차질 없이 진행된 편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유망한 국가 이외에도 유망 후보 국가들의 시장 및 제도에 대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까지 파악한다면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의 비용과 시간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포부가 있다면.

"불광불급(不狂不及), 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말처럼 제가 하는 일,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대한 몰두하려고 해요. 네오플란트가 지금은 직원 50명 가량의 중소기업이지만 곧 1백명으로, 좀 더 있으면 수백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회사와 같이 크는 것이 제 목표예요. 꾸준히 노력하고 성장하다 보면 제가 지사장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G



글·민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팬만 2억명… 월드스타 기타리스트 정성하 군

16세 소년의 '여섯 줄 마법'에 세계가 깜짝

세뱃돈 모아 7만원짜리 기타를 처음 샀던 10세 소년 정성하… 어느덧 전 세계 2억명의 팬을 지닌 월드스타로 자랐다. 정 군의 놀라운 기타 실력은 2006년 그의 아버지가 연주 동영상을 재미 삼아 유튜브에 올리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이후 '유튜브 신동'에서 세계적 기타리스트로 폭풍 성장한 정 군을 만나봤다.



정성하 군은 연습벌레다. 열 살 꼬마 때부터 자기 몸보다 큰 기타를 메고 연습에 또 연습을 거듭해 왔다. 요즘에도 매일 2~3시간씩 연습한다.

청심국제중학교 3학년인 정성하 군은 이미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로 인정받고 있다. '비틀스' 멤버였던 고(故) 존 레논의 부인 오노 요코가 그의 연주 실력을 극찬했고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울리 뵈게르샤우젠, 토머스 리브, 트레이스 번디 등이 제자 삼고 싶다며 러브콜을 보내왔다.

전 세계 2억명의 팬을 보유한 그는 해외 공연도 활발하다. 가수 비욘세 등 세계적인 뮤지션과 한 무대에 섰으며 지난해 1월 유명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트레이스 번디와 함께 미국 5개 도시 투어 공연도 마쳤다.

그의 기타실력은 유튜브를 타고 처음 알려졌다. 2006년 정 군의 아버지 정우창씨가 재미 삼아 올린 연주 동영상이 크게 화제를 모으며 '유튜브 신동'으로 유명세를 탔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인 최초로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1억 뷰(View)를 넘겼다. 하나 둘 찍어 올린 정 군의 연주 동영상은 어느덧 2백 50개를 훌쩍 넘었다.

'핑거스타일' 주법… 비욘세 등 세계적 뮤지션과 한 무대

정 군의 연주가 세계 팬을 사로잡은 이유는 뭘까. 그가 놀이처럼 즐기는 기타 연주는 특별하다. 귀에 익숙한 팝송들은 고사리 같은 손에서 현란한 손놀림으로 되살아나 부드럽고 때론 강하게 아름다운 사운드를 뿜어낸다. 더구나 보기 드문 '핑거스타일'의 주법을 구사한다. 핑거스타일이란 기타 한 대로 비트와 멜로디, 베이스 라인을 모두 표현하는 주법을 말한다. 한번에 많은 연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의 주법으로, 전 세계에서도 이를 구사하는 기타리스트는 많지 않다.

정 군은 아버지에게 기타를 처음 배웠다. 핑거스타일 연주법을 추천해 준 사람도 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제게 가장 가까운 멘토이자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제 연주에 대해 거의 칭찬을 하지 않으시는 편인데 오히려 그게 자극이 돼서 도움이 많이 돼요."

정 군은 재능도 뛰어나지만 굉장한 연습벌레다. 그는 처음에 손

에 비해 기타가 너무 커서 아프고 힘들었지만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기타를 익혔다고 한다. 이런 노력으로 그는 성인 기타리스트 못지않게 곡 해석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요즘에도 매일 2~3시간씩 기타를 연습한다. 그는 학교에서 마련해 준 개인연습실도 있다. 이곳에서 주 3회, 일본의 재즈 기타리스트 하타슈지 씨에게 개인 교습을 받고 있다.

"기타 연습은 어디든 기타와 악보, 의자만 있으면 충분해요. 가끔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할 때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타에 푹 빠져 있을 때가 가장 좋아요. 요즘에는 영어에 능통한 친구들을 보며 영어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선 어떨까. 정 군은 친구들이 '월드스타'라고 부른다며 쑥스러움을 내비쳤다. 요즘 친구들이 정 군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영화도 찍었으니 한턱 쏴'라는 말이란다. 정 군은 최근 영화 〈수상한 고객들〉에 가수 윤하의 동생으로 출연했다.

"매니지먼트 쪽은 아버지께서 관리해 주시는데, 영화 출연 제의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재밌을 것 같아 도전해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일은 늘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이번에 영화를 처음 찍으면서 밤샘 촬영도 하고 배우들도 만나보는 등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

지독한 연습벌레… 영화 〈수상한 고객들〉에 출연도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정 군은 최근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연습 중이다. 정 군은 지난해 여름 노래를 배우기도 했지만 아직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처럼 노래에도 관심이 많은 그는 좋아하는 대중가수로 '빅뱅'을 꼽았다.

"빅뱅 멤버 중 특히 지드래곤 형을 좋아해요. 직접 앨범 작업에 참여하면서 작곡도 하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음악을 해석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요즘 TV에 나오는 가수 중에는 소속사에서 주는 음악만 시키는 대로 연습해서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빅뱅은 뮤지션의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자신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해 낼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같이 작업해 보고 싶어요."

어린 나이에 기타리스트가 됐는데, 다른 꿈은 없을까. 정 군은 우쿨렐레도 배워봤지만 기타가 제일 좋다고 말한다.

"기타는 기쁨이든 슬픔이든 제가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악기예요. 어릴 때 피아노도 배워봤지만 제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기타가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정 군의 영향인지 최근 들어 기타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기타 신동인 정 군에게 기타를 잘 치는 법을 물었더니 대답은 의외였다. 꾸준히 노력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 군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두 손을 활짝 펼쳐보였다.

"포기 않고 하나의 곡 완성했을 때 보람 정말 커요. 사실 기타에 도전했다가 손이 아프고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악보가 어렵거나 연주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속상해요. 그래도 될 때까지 꾸준히 연습하고 정성을 기울이다 보면 결국 해결되고 뿌듯한 성취감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실력도 늘고 재미도 붙거든요. 그 성취감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습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의 곡을 완성했을 때 보람은 정말 큽니다."

인터뷰 내내 본 16세 사춘기 소년 정 군은 눈이 맑고 표정이 밝았다. 이미 월드스타로 떠오른 정 군의 꿈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아름다운 기타 연주로 세상을 감동시킬 소년의 미래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세계적인 분들과 공연해 보고 싶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음악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항상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에게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쑥쑥 성장할 제 모습 지켜봐 주실 거죠?(웃음)" G

글과 사진 · 박미영 (고려대 조형학부 4학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기자단은 참신한 시각으로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의 이슈, 정책 등을 취재하고 다양한 홍보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현재 6기 10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의 열정 넘치는 이야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식블로그 도란도란문화놀이터(culturenori.tistory.com)에서 더 자세히 만날 수 있다.

스물다섯 총각, 김치 만나 일 냈다

대학생 사업가 노광철씨 김치 쇼핑몰 '짐치독' 운영…"한류의 매운 맛 널리 전파"

김치 쇼핑몰 '짐치독'의 젊은 CEO 노광철씨는 대학생 김치 사업가로 유명해졌다. 그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전액을 기부한 것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제부터는 김치로 한류를 이끌겠다며 나서고 있다.

"진정한 한류는 대중문화의 수출이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와 전통음식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치를 통해 우리의 전통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한류의 촉진제가 되고 싶습니다."

김치 쇼핑몰 '짐치독'을 운영하고 있는 스물다섯 노광철씨의 포부다. 지난 2009년부터 '짐치독'을 운영해 온 그는 "김치는 우리의 전통음식이자 전통산업인데 젊은이들이 이끌어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작년 짐치독의 매출은 약 6억원. 순수익만 약 6천만원이다. 노 대표는 이 수익금 전부로 다시 김치를 담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나눠줬다. 기부는 사실 그의 생활이다. "어릴 적부터 읽은 책은 모조리 기부해 버리는 통에 집에는 남아 있는 책이 별로 없을 정도다"고 말한다.



김치 쇼핑몰 짐치독을 운영하는 노광철 대표는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 전액을 다시 김치를 담가 기부했다.

사업수익 전액 김치 담가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에

"초등학생 때 한 번은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집이 다 타 버렸지만 적십자사에서 구호물품을 보내 줘서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 일이 계기가 돼 저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노 대표가 수익 전액을 기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전문경영인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1년, 10년, 50년 계획을 다 세워 놨어요. 하지만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남들과 똑같이 스펙 쌓기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만의 이야기와 경험을 만들고 싶었지요."

노 대표가 김치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2008년 군대에 있을 때였다. 당시 중국산 김치를 한국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된 사건의 신문 기사를 본 것이 계기가 됐다. '김치는 우리의 전통음식이고 끼니마다 먹는 음식인데 믿고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노 대표의 생각이었다.

결심이 선 뒤 노 대표의 여가 시간은 김치 공부로 채워졌다. 취사병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김치 관련 책을 찾아보는 것이 그의 일상처럼 돼 버렸다. 그리고 전역을 하기도 전인 말년 휴가 때 그는 김치 점포를 덜컥 계약해 버렸다.

"그때 저지르지 않으면 아마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서 시

작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확 저질러 버렸지요. 사업을 위한 기초 작업은 이미 끝낸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김치 사업은 시작부터 큰 난관을 맞았다. 이론만 알았지 정작 제대로 된 김치맛을 낼 줄 몰랐던 것이다. 그때부터 노광철 대표는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익을수록 풍부한 맛이 나는 전라도 김치는 저장성을 위해 젓갈을 많이 사용하는데, 문제는 젓갈의 비린 냄새였다. 젓갈 비린내를 없애는 것이 맛의 관건이라 생각한 노 대표는 해안가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비법을 찾기 시작했다. 결국 사업을 시작한 지 꼬박 1백 일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김치맛을 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사업 초기엔 적자… 입소문 타고 매출 뛰어

김치맛을 찾았으니 이제 김치를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를 위해 그는 발로 뛰기 시작했다. 우선, 밥과 김치를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좌판을 벌였다. 학교 동문회마다 김치를 들고 찾아다니기도 하고, 노점상들과 싸움이 붙거나 단속에 걸려 좌판이 엎어지는 일도 다반사였다. 고등학교 때까지 소심한 성격에 가까웠던 그에게 특히 거리로 나가 사람들과 직접 부딪치며 홍보를 하는 일은 힘든 과정이었다.

이런 노력 끝에 얻어낸 첫 대량 거래처는 다름 아닌 교도소였다. 그는 재소자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특식에 갓김치로 응찰, 1톤 물량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첫 대량 납품이 쉽지만은 않았다. 갑자기 내린 폭설로 김치로 만들 갓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노 대표는 돌산갓으로 유명한 여수로 무작정 내려갔다.

"농장에 갓은 있는데 농장주가 일본에 수출해야 할 물량이라며 팔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선 인부들에게 일단 갓을 뽑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농장주에게 가서 '지금 인부들이 갓을 뽑고 있다. 그러니 갓을 팔아 달라'고 설득했지요."

어렵게 갓을 구하자 이번엔 김치를 담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사람을 구하기 힘들었던 것. 이번엔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온 가족이 4일 밤을 새워서 김치를 담갔고 결국 시간 내에 김치를 납품할 수 있었다.

계약을 따내는 일부터 재료 수급, 김치를 담그는 것까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 결과는 2백만원의 적자로 이어졌다.

"금전적으론 2백만원을 손해 본 건 사실이지만 대신 2백만원보다 값진 경험을 얻게 됐으니 손해 본 장사는 아니지요."

짐치독의 김치맛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매출도 점차 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배추 파동이 일면서 또 한번 시련이



지난 4월, 노광철 대표는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서 이색김치 최강달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닥쳤다. 많은 김치 업체가 위기를 맞았지만 노 대표는 이를 기회로 생각했다.

"사실 작년 봄부터 배추는 이미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추석 즈음엔 덥고 비도 많이 와서 물량이 없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 냉장 창고를 지어서 창고에 배추를 가득 채워 놨어요."

"적응하기보다 변화를 이끄는 20대가 돼야죠"

이런 노 대표의 예상은 적중했다. 얼마 후 배추 파동이 터지면서 많은 김치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거나, 김치 가격을 몇 배로 올리는 와중에도 노 대표는 '배추 파동을 이용해 돈을 벌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았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바탕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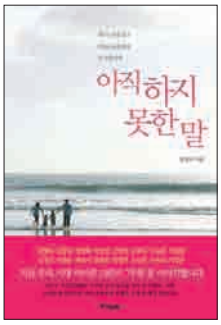
그의 도전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그는 요즘 짐치독의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입맛을 잡기 위해 그는 '파프리카 김치' '인삼을 접목한 김치' 등을 만들었다. 이런 끊임없는 시도를 하다 보니 지난 4월, 그는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을 통해 '이색김치 최강달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같은 또래 젊은이들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스펙 경쟁에 눌려 20대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기보다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20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

글과 사진 · 김성훈 (공감코리아 정책기자)

〈아직 하지 못한 말〉

성공으로 이끈 가족의 힘



안길수 지음
중앙북스 펴냄 · 1만1천원

'처자식을 버리고 북으로 떠났지만, 그곳에서도 버림받은 아버지. 남게 된 가족의 방황과 정착. 그러나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가 50년 만에 편지를 보냈을 때, 아들(소설가 이문열)은 조금 흔들렸다.'

〈아직 하지 못한 말〉은 유명인사 15인의 가족 이야기를 저자 안길수씨가 직접 인터뷰하여 기록한 책이다. 소설가 이문열, 축구선수 박지성, 디자이너 김영세, 국회의원 원희룡 등이 바로 인터뷰 대상자들이다. 유명인일수록 개인사를 밝히기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저자는 직설적 접근을 통해 이들의 숨겨진 인생을 끌어냈다. 덕분에 이 책에는 유명인사들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가족 구성원의 특별한 뒷바라지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들의 가족 이야기는 아름답지만은 않다. 박지성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영문도 모르고 뺨을 맞았던 기억을 이제야 꺼내놓았다.

또 방송인 주철환은 아버지에 대한 거리감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들 앞에서 눈물이 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다'고 털어놓는다. 최태지 국립발레단장은 딸들이 엄마의 이혼을 잘 견뎌준 것이 고마우면서도 엄마 때문에 발레학교에서 '왕따'가 되어서 많이 울었다고 고백한다.

"가족에게 더 늦기 전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러나 이런 쓰라린 기억들이 이들을 더욱 발전시켰고, 서로의 소중함을 확인하게 만들었다. 저자는 이들이 가족을 통해 '나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얻었고, 덕분에 스스로를 믿게 됐으며,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욕해도 단 한 사람–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자녀–만큼은 자신을 믿고 응원해 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단지 유명인사들의 뒷이야기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아픈 추억을 담담히 읊조리는 15인의 모습 속에서 독자는 '내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 특별할 줄 알았던 그들 역시 뒤늦게 후회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하며, 사랑을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독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15인의 유명인사들이 공통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더 늦기 전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고 표현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한층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한다.

글 · 서일호 기자

새로 나온 책

어린이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안미란 지음 · 정진희 그림 | 주니어김영사 펴냄 · 9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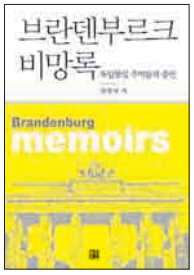


어린이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정의 토론 교과서다. 큰내 초등학교 5학년 무지개반 5명의 친구가 들려주는 정의에 관한 8가지 이야기다.

가난한 친구에게 늘 나누어주는 일, 학급의 성적 향상을 위해 지적장애아 친구가 시험을 안 봤으면 하는 마음 등 생활 속에 녹아든 문제를 정의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토론해 보도록 꾸몄다. 용기와 지혜를 바탕으로 이기심 없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정의로운 행동임을 일깨워준다.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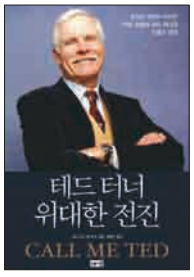
양창식 지음 | 늘품플러스 펴냄 · 1만8천원



동독의 '혁명'에서 독일 '통일'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동독 주민들의 탈출과 시민 혁명을 시작으로 화폐 통합, 정치적 통합, 국제 사회의 합의를 거쳐 분단 45년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통일의 과정을 담았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서독의 정치 지도자와 관료들의 정책과 조치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저자는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통일연구관, 독일통일연구단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만나게 된 독일 통일 주역들과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이 책을 썼다.

테드 터너 위대한 전진

테드 터너, 빌 버크 지음 · 송택순 옮김 | 해냄 펴냄 · 2만1천원



이 책은 세계 최초 24시간 뉴스 채널 CNN을 창립한 테드 터너의 자서전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불우한 개인사는 물론 미디어 왕국을 건설해 가는 숨가쁜 과정, 요트광으로서 보여준 매서운 리더십, 수퍼리치로서 제2의 인생 행보 등 그의 인생을 총 33개의 장에 걸쳐 솔직하고 거침없는 육성으로 들려준다.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가장 위대한 결과를 만들며 끊임없이 전진해 왔던 한 인간의 집념과 고뇌를 생생히 만날 수 있다.

몸을 낮추십시오

글과 그림 · 최영순



하늘은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고
스스로 겸양하는 자를 높이 끌어올린다. – 탈무드

“엄마, 내 몸이 없어졌어요!” “ㅋㅋ 원리가 뭐냐 하면…”

전시 **〈트릭아트 특별전〉**

“와, 몸이 없어졌어. 되게 신기하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트릭아트’ 전에 들어선 최한(중대부초 3년) 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신체이탈 코너. 벽 구석에 놓인 테이블 양쪽에 거울을 붙여 그 테이블 안에 앉으면 밖에서 보기에 몸과 얼굴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작품이다. 거울의 반사와 굴절의 원리에 따른 착시효과를 적용한 것으로 트릭아트 전의 대표작이다.

지난해 일산 킨텍스 전시에서 30만명의 관람객이 찾아 화제가 된 ‘트릭아트 특별전’이 6월 26일까지 테크노마트 신도림점 특별전시관에서 다시 열린다. 눈으로만 감상하던 미술전시를 벗어나 손으로 만져보고, 작품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연출해 사진촬영도 할 수 있다. 트릭아트는 실재라 착각을 일으킬 만큼 세밀하게 묘사해 감상자의 눈을 속이는 미술기법이다. 회화나 조각 또는 이미지 위에 투명도가 높은 특수도료를 사용해 평면의 그림을 입체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사진촬영이 금지되는 일반 전시와 달리 전시관 입구에 ‘디지털 카메라 지참 필수’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다.



중앙pb

‘트릭아트 특별전’을 찾은 최한(사진 가운데) 군이 이규원 군과 함께 오서영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거울의 반사·굴절에 따른 착시효과 적용

학교 친구들과 전시를 찾은 최 군은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에임즈 방을 발견했다. 이곳에서 자신보다 몸집이 큰 이규원(중대부초 3년) 군과 사진을 찍고 난 최 군은 깜짝 놀랐다. 카메라에 잡힌 자신의 모습이 이 군보다 훨씬 커 보였기 때문이다.

“방이 약간 기울어진데다 양쪽 구석의 거리와 높이를 다르게 만들어 놓았지. 그래서 양쪽에 있는 규원이랑 한이랑 몸집이 평소와 반대로 보이는 거야.”

최 군의 어머니 오서영(39·서울 신대방동)씨가 스태프에게서 에임즈방 원리를 듣고 다시 아이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준다. 오씨는 “얼마 전 TV에서 눈의 착시현상에 대한 과학 프로그램을 봤는데 여기서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니 더 생동감 있다”며 “아이들이 대칭과 비례 등 과학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살아 있는 학습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중대부초 5년)·준(중대부초 3년) 자매와 함께 이곳을 찾은 장동선(38·서울 신대방동)씨는 “여기와 유사한 전시를 가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찍은 사진을 보니 원리를 알고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다시 찾았다”며 “착시현상에 대한 컴퓨터 사진은 많이 봤지만 자신이 직접 그 사진의 주인공이 되니 더 재미있어 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곳은 빛의 반사를 최대한 줄이면서 일반 카메라로도 트릭아트의 느낌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전시실 조도를 적절히 조절해 놓았다. 사진 촬영 때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고 찍는 것이 그림의 효과를 잘 살릴 수 있는 요령이다.

반 고흐,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유명 화가 18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명화 패러디, 아마존의 밀림과 쥐라기 시대의 공룡을 만날 수 있는 아마존, 에임즈방, 착시의자, 거울의 방 등 공간 설치 작품전 등으로 구성됐다. 휴관 없이 매일 저녁 9시까지 열린다. G

글·김지혁 (중앙일보 교육섹션 기자)



연극 **산불**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최고봉이라 칭송받는 차범석의 〈산불〉은 1962년 명동 국립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여러 극단과 단체, 학교에 의해 꾸준히 공연되는 명작 중의 명작이다. 올해는 고 차범석 선생의 5주기가 되는 해이다. 작품의 배경은 1951년 추운 겨울, 소백산맥 한 줄기에 묻힌 두메산골. 남자들은 전쟁에 희생되거나 길을 떠났다. 마을은 김 노인과 아이들을 빼곤 여자들만 남게 됐다. 욕망과 인간애 사이에서 여자들의 혼란은 커져간다.

일시 6월 5~26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80-4115



콘서트 **임재범 콘서트** MBC 〈나는 가수다〉 스테이지에 등장해 자신의 히트곡 중 하나인 '너를 위해'를 열창한 임재범. 그가 돌아왔다. 숨죽여 지켜보던 청중평가단은 너나 할 것 없이 그에게 1위를 안겼다. 스스로 말했듯이 그도 인간인 탓에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으며 노래의 호흡도 자주 끊겼다. 머리를 짧게 깎고 안경을 쓴 그의 모습에선 특유의 이글거리는 도시의 야수 모습은 없었다. 그를 순화시킨 건 아마도 갑상선암 제거 수술을 받은 아내와 열 살 난 딸일 것이다.

일시 6월 25~26일 **장소**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관람료** VIP석 12만1천원 R석 11만원 S석 9만9천원 A석 8만8천원 **문의** 1544-1555



뮤지컬 **모차르트**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역동적인 인생 이야기다. 클래식한 음악과 소재를 록과 재즈의 형식으로 풀어나간 뮤지컬 넘버가 인상적이다. 잘츠부르크 궁중 지휘자인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자리에 모인 귀족들에게 자신의 다섯 살 난 아들 볼프강의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며 그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소개한다. 그로부터 9년 후, 볼프강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잘츠부르크의 영주인 콜로레도 대주교의 지배하에 음악 활동을 한다.

일시 7월 3일까지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관람료**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문의** 02-6391-6333

공연소식

공연	장소	날짜	문의
뮤지컬			
몬테크리스토 백작	목포시민문화센터 대극장	7월 2~3일	061-270-8100
그리스	한전아트센터	6월 12일까지	1588-5212
젊음의 행진	유니버설아트센터	6월 26일까지	02-738-8289
지킬앤하이드	샤롯데씨어터	8월 15일까지	1588-5212
연극			
옥탑방고양이	SM틴틴홀	오픈런	02-764-8760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10주년 공연	유시어터(청담동)	8월 28일까지	02-556-5910
최정원의 연극 〈피아프〉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6월 5일까지	02-2230-6600
콘서트			
2011 조용필&위대한 탄생 전국투어 콘서트	의정부종합운동장	6월 4일	031-871-7004
컬투쇼 대학로 소극장공연	대학로 문화공간 이다1	7월 3일	1544-4997
윤수일 밴드 전국투어	군산월명체육관	6월 18일	1544-0674
클래식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성남시민회관 대극장	6월 4일	031-783-8000
대구시립교향악단-The First & The Best	대구문화예술회관팔공홀	6월 3일	053-606-6313~4
말러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6월 16일	051-607-3111
무용			
대한민국발레축제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6월 18일	02-587-6183
김덕수의 전통연희상설공연 〈판pa : n〉	전통연희상설극장 광화문아트홀	오픈런	02-722-3416
프리미엄 런치콘서트 〈자미(滋味)〉	삼청각 프리미엄 상설공연	6월 29일까지	02-765-3700
디스 이즈 모던 2	유니버설아트센터	6월 9~12일	070-7124-1737

5월 넷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5월 15일~5월 21일

곡명	가수
1 Lonely	2NE1
2 Ma Boy	씨스타19
3 비가 오는 날엔	비스트
4 Golden Lady	임정희
5 Fiction	비스트
6 피노키오 (Danger)	f(x)
7 두근두근 (최고의 사랑 OST Part.3)	써니힐 (SunnyHill)
8 Don't Cry	박봄
9 보통	백지영
10 Shampoo	애프터스쿨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토이 스토리〉의 '투맨 히어로즈'에 담긴 의미

약해진 영웅상에 '미래의 상징' 긴급 투입

〈우디〉 〈버즈〉

미국을 이끈 영웅이지만 황혼을 맞은 우디에게 영화는 새로운 영웅 버즈와 짝이 되게 함으로써 전통과 미래를 같이 껴안는다. 우디와 버즈는 둘 다 미국의 역사 속에서 주류 정치적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영화의 새로운 영웅 개념은 두 명의 공조로 미국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것이다.

월트디즈니 계열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Pixa)는 〈토이 스토리1〉을 세상에 선보이면서 기존 영웅 이야기에 새로움을 첨가했다. 종래 한명의 영웅이 이끌어가던 '원맨 히어로' 전통을 두 명이 공조하여 이끌어가는 소위 '투맨 히어로즈' 영화로 만든 것이다.

영화의 주인공은 카우보이 인형 우디다. 아무 근심없이 주인 앤디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우디는 앤디의 생일선물로 우주비행사 버즈가 들어오고 난 후 앤디의 사랑을 빼앗기는 위기에 직면한다.

앤디의 사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심하면 폐기처분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의미한다. 사랑을 되찾기 위해 우디는 버즈를 제거하려고까지 하는 옹졸한 행동을 벌인다. 하지만 그들에게 시즈라는 악동이 나타난다. 시즈는 둘을 해치려 하는 공통의 적이다.

〈토이 스토리〉의 주인공 우디는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인 청교도 주의와 개척자 정신을 대변하는 서부개척시대 정의의 보안관이다. 서부영화의 주인공인 존 웨인(수색자), 게리 쿠퍼(하이눈), 헨리 폰다(내 사랑 클레멘타인) 등의 배우들을 이어가는 존재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서부극의 영웅들이 대중의 뇌리에서 서서히 사라져간다. 그 이유는 과학으로 무장된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앤디의 생일선물로 나타난 버즈라는 우주비행사 인형은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반영한다. 하지만 영화는 우디를 존속시키고 새로운 영웅과 짝이 돼 활약하게 함으로써 전통과 미래를 한꺼번에 껴안고 간다.

카우보이 캐릭터인 우디는 미국의 과거 프런티어 정신, 우주인 캐릭터인 버즈는 우주를 개척하는 과학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 둘은 미국에서 역사·정치적으로 주류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속에서 둘은 공통의 적 시즈를 만나 동병상련의 입장이 된다. 카우보이건 우주인이건 아랑곳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해치는 시즈는 장난감들에 있어서 공통의 적이다.



이것을 현실적 은유로 생각하면 시즈라는 존재는 미국을 위협하는 이념적 적국 혹은 재난이나 공해 같은 자연환경, 가난 등에 해당한다. 이 어려움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협하므로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든 미래개혁에 관심 있는 진보적 입장이든 둘 다 공통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우디와 버즈는 결합하게 되고 친구가 된다. 다가오는 위험 속에서 서로를 구원하다 보니 우정이 깊어진 것이다.

분명 표면적인 영웅은 우디 하나지만 그는 과거 전통 속의 미국을 상징하고 그의 위기를 미래전사인 버즈가 타개함으로써 두 명의 쌍생아적인 영웅이 탄생한 것이다. 〈토이 스토리1〉이 탄생했을 때 주어진 새로운 영웅의 개념은 그렇다. 두 명의 공조하는 영웅, 그것이 미래를 열어간다는 주장이다. G

정재형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모두 누려라, 취업 모두 웃어라, 여성

여성이여, 직장인으로 다시 훨훨 날아라!

잠시 접었두었던 당신의 능력 다시 발휘해보세요.
직장인으로 가슴 부푼 당신의 꿈을 이루어보세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장인으로
다시 시작하고싶은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직장에서 빛나는 당신의 내일, 훨훨 펼쳐보세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만나보세요

대표전화 **일**을 **구**해 드립니다

1544-1199

직업상담
- 1:1 맞춤형 취업상담 ● 취업정보 제공
-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

직업교육
- 무료 직업 교육 ● 새일여성인턴제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특화교육

취업알선
- 개인별 맞춤형 취업 알선
- 구인구직 정보 DB 관리

사후관리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서비스
-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Government Call Cente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정부민원!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

정부대표민원전화 110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 업무를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평일 08:00~21:00 / 토요일 09:00~13:00
예약상담 www.110.go.kr, m.110.go.kr 휴대전화 문자상담 110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